



선행학습보다 강한 힘!

자녀학습 200% 성공전략





Part I

선행학습 제대로 알기



Part II

스스로 주도하는 파워학습전략

01. 선행학습, 과연 효과가 있을까?

- | | |
|------------------|----|
| 1.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는? | 06 |
| 2. 과도한 선행학습의 문제점 | 08 |

02.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

- | | |
|-----------------------|----|
| 1. 공교육정상화법, 어떻게 적용될까? | 12 |
| 2.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입시 | 14 |
| 3. 선행교육 방지! 학부모의 역할은? | 16 |

03. 선행학습 없는 학교수업 성공전략

- | | |
|--------------------|----|
| 1. 학교수업 성공의 4원칙 | 20 |
| 2. 교과별 수업 스타일 파악하기 | 26 |

04. 효과적인 '스스로 공부법'

- | | |
|--------------------|----|
| 1. 교과서 이해하기 | 32 |
| 2. 과목별 '스스로 공부' 전략 | 36 |

05. 사교육을 뛰어넘는 자기주도학습

- | | |
|-----------------------|----|
| 1. 부모가 먼저 생각을 바꾸자 | 42 |
| 2.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갖자 | 45 |
| 3. 학원 대신 초등돌봄교실을 활용하자 | 47 |
| 4. 학원의존증, 빨리 벗어나자 | 48 |

C o n t e n t s



Part III

나에게 꼭 맞는 상황별 맞춤학습법

06. 방과 후 매일 학습법

1. 하교 후에는 숙제부터 하자	56
2. 스스로 정한 공부를 시작하자	59
3. 매일 복습법	62
4. 매일 예습법	66
5. 공부계획 세우기 6단계	68
6. 주간 학습 플랜 세우기	72

07. 방학 기간 집중학습법

1. 취약 부분 복습하기	76
2. 체험학습으로 뇌를 자극하기	79
3. 방학숙제 효과적으로 하기	82
4. 개학 준비하기	86

08. 시험 준비 맞춤학습법

1. 시험공부는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	88
2. 과목별 체크 포인트	90
3. 시험 후 학습 관리 방법	94
4. 효과 있는 상과 벌은?	97

Part I 선행학습 제대로 알기

Part II _ 스스로 주도하는 파워학습전략

Part III _ 나에게 꼭 맞는 상황별 맞춤학습법





01. 선행학습, 과연 효과가 있을까?

1.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는?
2. 과도한 선행학습의 문제점

02.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

1. 공교육정상화법, 어떻게 적용될까?
2.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입시
3. 선행교육 방지! 학부모의 역할은?

01

선행학습,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학교진도에 맞춘 공부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면서 왜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선행학습을 하는 걸까요? 이제, 선행학습에 대한 허와 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1.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는?

선행학습 제대로 이해하기

선행학습이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는 범위와 수준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선행학습의 범위와 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선행'은 학기를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은 선행학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선행학습이라고 봐야 하지요.

★ 선행학습 규제, 알고 계세요?

2014년 9월부터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 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배울 것을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은 이 법과는 관계 없습니다.

● 공교육정상화법이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출처〉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4.9.12.] [법률 제12395호, 2014.3.11.제정]





불필요한 선행학습을 하는 5가지 이유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성장, 발달 단계에 맞추어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공부를 한다면 제대로 학습효과를 낼 수 없고 오히려 학습흥미를 떨어뜨리지요. 특히 사교육비의 부담이 큰 데도 선행학습이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남들이 다 하니깐!

주위에서 다들 선행학습을 하는데 내 아이만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라면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겠지요?

2 학교에서 하니깐!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했다고 감안해서 쉬운 내용은 생략하고 진도를 빨리 나가며 시험도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또한 위 학년의 내용을 안다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복잡한 풀이 과정에서 실수를 해서 손해를 보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3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서!

수업시간에 설명이 빠르거나 배경지식을 생략하고 넘어갈 경우 수업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걱정도 선행학습을 부추깁니다.

4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해서!

미리 공부하면 자신감이 생겨서 선생님의 질문에 위축되지 않거나, 전혀 모르는 내용을 처음 배우는 것보다 훨씬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5 학원에서는 다 선행학습을 하니깐!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학원에서 선행진도를 나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 공부의 보충을 넘어 이제는 선행학습이 일상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2. 과도한 선행학습의 문제점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의 성적이 더 낮다

남들보다 빠르게 진도를 나간다고 해서 성공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속도, 내 수준을 알고 나에게 맞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성적이 더 낮다는 사실을 알면 부모의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아이들

대학교 1학년 A군의 고백에 귀 기울여 봅시다. 어릴 때 천재,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던 A군은 공부도 잘하고 책도 많이 읽었고 경시대회 문제도 쉽게 풀었지요. 초등학교 5학년에 이미 중 3 과정을 선행학습으로 끝냈고, 6학년에는 이미 특목고에 합격할 정도의 실력이라고 칭찬을 들었던 A군, 과연 좋은 결과를 얻었을까요?



공부에 너무 일찍 질려버렸어요!

Case

중학교부터 점점 성적이 떨어졌어요

중학교 1학년이 되자 공부가 너무 쉽고 대충 해도 늘 1등이었어요. 2학년 때는 성적이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상위권이었지요. 하지만 3학년 때 외고에 불합격되고 일반고에 진학한 후부터는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반에서 상위권 유지도 힘들었고, 공부도 잘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초등학교 때는 그날 공부를 다 하지 않으면 밤을 새서라도 끝까지 단어를 외우곤 했지요. 그때는 그게 잘 하는 것이라고 믿고 선행학습을 계속했는데, 아마 그것이 오히려 공부에 일찍 질려버리게 만든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더 많은 공부를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겨우 대학에 들어간 저를 보고, 초등학교 때 저를 알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란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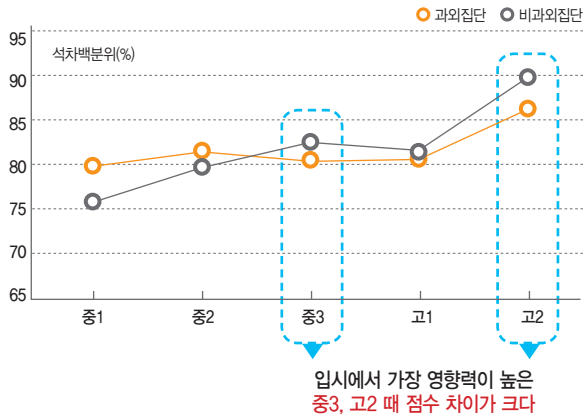


★ 선행학습의 폐해는 중학교 시기에 나타난다

선행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이종태 외, 한국교육개발원, 2002)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상위 30% 학생들의 국어 성적을 기준으로, 선행학습 사교육을 받은 집단과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선행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

조사 결과, 처음에는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의 성적이 좋았지만 중2 중반을 지나자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집단의 성적보다 떨어졌습니다. 특히 입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중3과 고2 때 점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행학습은 공부의 탄력을 잃게 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이미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학원에서 힘들게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상을 받으려 합니다. '오늘 진도 뭐지? 아는 거네 뭐.' 해 버리는 거지요, 수업 집중이 무엇인지도, 수업 후의 복습이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서서히 늘어지면서 공부에 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시기가 바로 중2 중반입니다.



조기 영어교육이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부모들이 영어 선행학습에 욕심을 갖습니다. 언어는 조금이라도 어릴 때 익혀야 발음도 좋고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심이 앞선 조기교육은 뇌를 자극하기는커녕 뇌 기능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 지나친 조기교육은 뇌 발달을 막을 수 있다

뇌는 특정 시기마다 발달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특히 0~3세에 과도한 학습을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사회성이나 정서 발달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결국 의사소통이나 정서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자폐와 같은 정신질환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조기 영어교육, 저의 잘못된 욕심이었어요

Case

6개월 간의 미국 유치원 프로그램

아이가 여섯 살 때 6개월 동안 미국에서 생활하며 미국 유치원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비싼 프로그램이었지만 거부감 없이 영어를 배울 것이라는 기대도 컸지요. 미국 유치원 생활은 즐거웠고 수업 내용도 좋았습니다. 아이가 원어민 발음을 그대로 흉내 낼 때는 오길 잘했다는 확신도 들었지요.

잘못된 교육열의 결과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는 발음이나 문장력 모두 친구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괜한 짓을 했다 싶습니다. 유치원 수업은 말보다 동작을 따라 하는 게 더 많고, 문장보다 단어를 반복하는 게 더 많으니 영어를 배운다고 할 수도 없지요. 생각해보니 쓸 데 없는 상술에 말려들었던 것 같아 부끄럽기만 합니다.



☆ 성장 ·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이 중요하다

기억, 추리, 계산, 언어 등 공부를 잘하는 데 필요한 기능은 뇌의 전두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두엽은 발달이 가장 늦게 완성되므로 미취학 아동의 전두엽은 시냅스 형성을 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학습은 호기심이나 상상을 촉진하는 활동이어야 하며, 일상적인 활동만으로도 충분한 학습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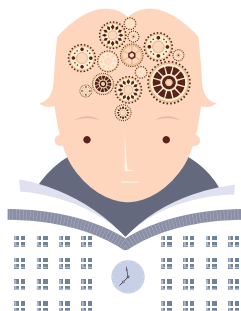
<뇌 발달 시기에 맞는 교육법>

나이	뇌 발달 주요 내용	교육 방법
0~3세	고도의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이 골고루 발달	정서발달을 중심으로 오감학습을 통해 두뇌를 골고루 자극
3~6세	전두엽(종합적인 사고력 등을 조절)이 보다 빠르게 발달	예절교육, 인성교육 등을 다양하게 시도하여 습관 형성
6~12세	측두엽(언어 · 청각 기능)과 두정엽(수학 · 물리적 사고)이 빠르게 발달	한글과 영어 등 본격적인 언어교육 시작
12세 이후	후두엽(시각 기능)이 많이 발달	외모에 관심이 많고 타인을 인정하는 시기이므로, 자아 성찰 교육 필요

〈출처〉 서유현(2011), 뇌 발달 시기에 맞는 교육법, 사교육정책중점연구 포럼 자료집.

☆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않도록!

학습량이 너무 많을 경우 뇌는 무리가 오는 걸 피하기 위해 대충 처리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실패 경험이 많아진 아이들은 학습을 회피하고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선행학습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 공부'의 힘을 잃게 됩니다.



02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

그 동안 선행학습을 전제로 진행되기도 했던 수업과 시험출제, 이제 **공교육정상화법**과 함께 학생들은 학습 부담을 벗어나고 자신의 발달단계에 맞는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1. 공교육정상화법, 어떻게 적용될까?

[Q & A]로 알아보는 '공교육정상화법'

Q 선행교육이 정확히 뭔가요?

선행교육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 수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도 수준의 교육 과정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Q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한다'는 의미는?

학교는 시·도 교육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으로, 중·고등학교는 1~3학년이 하나의 학년군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앞서서 편성한다는 것은 학년군을 앞서서, 중·고등학교는 학교급을 앞서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공하는 경우는 계획된(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기, 학년, 학년군 또는 학교급을 앞서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Q **구제 대상의 예는?**

- 2학기에 편성된 교수학습내용을 1학기에 가르치는 것
- 다음 학년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것
- 상급 학교의 교과목 내용을 가르치는 것 등



Q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뭐지요?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대회 등에 출제하는 것은 선행학습 유발행위입니다. 또한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배치고사에서 고등학교 내용을 출제한다면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됩니다.

Q 만약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선행교육 방지대책,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을 심사·의결하도록 합니다. 만약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할 경우 학교에 시정 및 변경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부과합니다.

Q 경시대회 준비를 위한 선행도 안 되나요?

수학경시대회와 같은 교내대회도 각 학년의 배운 내용을 넘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과학탐구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예를 들어봅니다. 만약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5, 6학년 수준의 내용을 지도한다면 그것은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입시

중·고등학교 입시에 적용되는 공교육정상화법

공교육정상화법은 입시에도 적용됩니다.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을 위해 대학,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시행되도록 합니다.

☆ 입학전형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중·고등학교는 각 학교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맞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학교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뛰어넘는 자료를 반영할 수 없으며, 입학전형에 반영하는 해당 교과목 이외의 교과 성적을 반영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학교 밖 경시대회, 각종 인증시험, 각종 자격증 등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실적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학교별 설립목적과 특성>

학교 구분	설립목적 및 특성	비고
국제중	국제 분야로 교육과정 등을 특성화(특성화중학교)	교과 성적 미반영
국제고	국제 전문인재 양성(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영어 교과 반영
외국어고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영어 교과 반영
과학고	과학 인재 양성(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수학·과학 교과 반영
자사고	건학 이념에 따라 능력·적성에 맞게 개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반영 교과·비율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자율 결정)	서울방식 자사고는 교과 성적 미반영

자기주도학습전형 배제 사항 ('15년 기준)

- 어학인증시험 점수(TOEFL, TEPS, TESL, TESEL, PELT, HSK, JLPT 등)
- 능력시험 점수(한국어(국어), 한자 등)
- 올림피아드(KMO 등), 교·내외 경시대회 입상 실적, 영재교육원 교육·수로 여부 등
- 부모 및 친인척 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 관리 · 감독을 위해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교육정상화법! 대학교 입시에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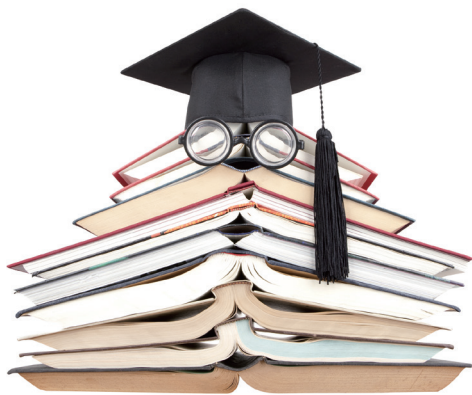
☆ 대학별고사의 범위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별고사에는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 구술고사, 실기 · 실험고사는 물론 교직적성 · 인성검사도 포함됩니다.

☆ 매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및 반영

대학의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선행 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대학은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즉 영향평가의 결과와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선행교육 방지! 학부모의 역할은?



학부모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공교육정상화법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학부모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간혹 학부모들이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다음 학년에 편성된 과목을 미리 보충수업으로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게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학부모의 책무에 관한 기본 사항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공개수업, 학부모회의, 입시설명회 등 학부모 대상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의 분위기와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부모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학교에서 상급학년의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문제에 낸다면 학부모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면 학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처리하며, 그 결과에 불복한다면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합니다.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청에 상신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내부 검토 후 교육감 소속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사교육 기관에도 적용이 되니까?

- 학원 등의 사교육 기관은 교육서비스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제주체로 활동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학교처럼 강력한 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교육 정상화법은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도 적용이 됩니다.
- 제정조례규정에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 기관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민원처리의 흐름,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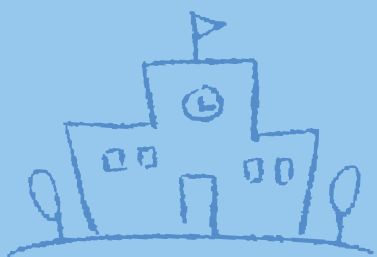
구분	처리 기관	업무 처리
출제 문제 등에 대한 이의 제기 (민원 발생)	학교	■ 일반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처리 ① 민원인이 학교 처리 결과를 수용할 경우 민원처리 종결 ② 학교 처리 결과에 불복 시 교육지원청에서 판단
학교 처리 결과에 불복 시	교육 지원청	■ 일반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 필요시 장학지도·조사 및 감사 등을 실시한 후 해당 학교에 처리 방안 통보 ① 민원인이 학교 처리 결과를 수용할 경우 민원처리 종결 ②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개요, 조사 내용 및 검토서 등을 첨부하여 상신. 단,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에 시정·변경 명령 등 조치가 수반 되므로 신중한 결정 필요
교육감 소속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 안전 검토	교육청	■ 본청 담당 공무원은 교육지원청의 검토서 등을 내부 검토한 후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 안전 상정 여부 결정 (필요시 장학지도·조사 및 감사 등 실시)
교육감 소속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 상정 및 처리	교육청	■ 교육감 소속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위원회→교육감) ② 교육감은 회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③ 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시 학교장 징계의결 요구.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행·재정적 제재



Part I _ 선행학습 제대로 알기

Part II 스스로 주도하는 파워학습전략

Part III _ 나에게 꼭 맞는 상황별 맞춤학습법





03. 선행학습 없는 학교수업 성공전략

1. 학교수업 성공의 4원칙
2. 교과별 수업 스타일 파악하기

04. 효과적인 '스스로 공부법'

1. 교과서 이해하기
2. 과목별 '스스로 공부' 전략

05. 사교육을 뛰어넘는 자기주도학습

1. 부모가 먼저 생각을 바꾸자
2.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갖자
3. 학원 대신 초등돌봄교실을 활용하자
4. 학원의존증, 빨리 벗어나자

03

선행학습 없는 학교수업 성공전략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수업을 못 따라 갈까요? 효과적인 수업을 준비하려면 선행학습보다는 오히려 연습과 복습, 교과선생님별 수업스타일 파악이 더 중요합니다.

1. 학교수업 성공의 4원칙

원칙 1 직전 연습 (⇒ 배울 부분 펴고 훑어보기)

학교 수업에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떤 공부에서도 좋은 태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선행 학습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수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그 첫걸음은 수업 직전 연습입니다.

☆ 수업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특징?

수업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수업 시작부터 불안정합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산만한 분위기가 계속되다가 선생님의 얼굴을 본 후에야 해당 과목의 책을 꺼냅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친구들을 기웃거리며 그제서야 책을 펴기 시작하니 수업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지요.

☆ 수업에 집중하려면 시작부터 야무지게!

선생님들도 수업 종이 올린 후에야 교무실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교실에 선생님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2~3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직전 연습의 포인트는 내가 이번 시간에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수업에 집중하기가 수월해집니다.

● [실천 Tip] 이렇게 해 보세요~

- ① 수업 종이 올리면 바로 책을 꺼내고 배울 부분을 미리 펴둡니다.
- ② 노트와 프린트, 필기구를 준비합니다.
- ③ 책을 펼치면서 자연스럽게 단원명을 살펴봅니다.
- ④ 선생님이 오신 후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뒷장을 넘겨봅니다.
틀리운 그림이나 눈에 띄는 단어들을 보는 것으로 연습은 마무리됩니다.



원칙 2 수업 집중 (⇒ 나의 생각을 선생님의 생각과 연결하기)

수업에 집중을 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지 생각해 보세요. 한 마디도 놓치지 않고 잘 듣는 것일까요? 잠당하지 않고, 또는 졸지 않고 선생님을 바로 쳐다보는 것일까요? 이것은 수업 시간에 지켜야 할 행동들일 뿐이지 학습효과와 연결되는 집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수업에 집중한다는 의미는?

집중을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선생님의 생각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즉, 선생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집중이란 나의 머릿속에 생각이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원칙 3 필기 (⇒ 내 생각 적기)

노트에는 1차적으로 수업 중의 판서 내용, 그리고 선생님이 지시하신 필기 내용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나다운 공부를 위해서는 내 생각을 적는 게 좋습니다. 수업을 들으며 떠올랐던 생각들을 함께 기록해 두면 더욱 맥락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 생생한 복습을 위한 필기방법

수업 중에 예를 들어서 설명한 부분에는 '드라마 이야기', '오락프로 여행 장소' 등의 메모를 해 두세요. 다음에 책과 노트를 펼쳤을 때 수업 장면을 입체적으로 떠올리며 생생한 느낌으로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 4 직후 복습 (⇒ 책 넘기며 눈도장 찍기)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는 학습을 한 후 10분이 지나면 망각이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수업 직후에 하는 복습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바로 책을 덮지 말고 40~50분 동안의 수업 내용을 머릿속으로 빨리 돌리기를 해 보세요.

☆ '빨리 돌리기', 이렇게 해 보자

- ① 지난 수업의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 봅니다.
- '책을 한 번 읽고 주요 단어를 설명한 후, 칠판에 그림을 그려 보충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물을 나누어 주고 문제를 풀다가 끝났지.'
- ② 빨리 지나가서 못 읽은 부분을 읽어 봅니다.
- ③ 풀었던 문제 중에서 어려웠던 것을 다시 풀어 봅니다.

☆ 직후 복습, 잘 실천하기 어렵다면?

네 가지 원칙 중에서 실천율이 가장 떨어지는 것은 바로 '직후 복습'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빨리 놓고 싶은 마음 때문이기도 하고, 또 친구들 앞에서 유난스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실천 Tip] 이렇게 해 보세요~

아이들의 이런 민감함을 이해해 주세요. 매시간 실천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격려해 주세요. 복습의 방법과 중요성을 설명해 주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천율도 올라갑니다. 궁극 후반이 지나면 대체로 안정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복습
예습
START





5분 노트, 직후 복습의 힘!

Case



2012 선행학습 없는 바른 교육 만들기 공모전 대상 수상작

백경현 학생

자기주도학습 동아리와 5분 노트

제가 직후 복습을 시작한 건 고1 때였습니다. 수업을 집중해서 잘 듣고 쉬는 시간마다 '5분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제가 속해 있는 자기주도학습 동아리의 공통과제였습니다. 우리는 수업이 다 끝나면 동아리 교실에 모여서 서로 5분 노트를 돌려 보았습니다. 다른 반 친구들의 노트에는 이미 우리 반이 배운 내용이 적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아직 우리 반이 배우지 않은 수업 내용이 있기도 했어요.

5분 노트의 훌륭한 장점

서로의 노트들을 읽다 보니 예습이 되기도 하고 복습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같은 과목이어도 다른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면 수업 내용도 조금씩 다르니까 시험 볼 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노트를 이렇게 쓰는구나'하고 배울 점도 있었고요. 친구들이 내 노트를 본다는 생각 때문에 5분 노트를 대충 쓸 수도 없었습니다.

성적을 바꾸어 놓은 5분 노트

이렇게 매일매일 학교 수업에 충실한 공부를 하면서 저의 실력은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성적이 좋은 편도 아니었고, 중간에 전학을 와서 1학년 1학기 성적은 포기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학기 평가에서 국어 1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2등급, 도덕 1등급, 기술·가정 1등급을 받아 전체 평균 1.5등급을 받았습니다.



학교수업 성공원칙, 실천 체크하기

4가지 원칙을 실천하였다면, 이제 잘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업 시간표를 네 칸으로 나누어서 매 교시 연습, 복습, 집중, 필기의 원칙을 실천했는지 체크해 봅니다.

★ 실천 체크하는 방법은?

처음 2주 정도는 좋아하는 과목만 고르거나 취약한 과목만 골라 실천해 보다가 점차 과목 수를 늘려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전 과목을 실천하되 한두 가지 원칙만 골라서 실천하는 것도 시작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입니다.

● [실천 Tip] 이렇게 해 보세요~

실천 체크표는 컴퓨터로 만들어 매주 한 장씩 출력하면 편합니다.
어릴 때 쓰던 글씨연습 노트(한 칸 안에 십자로 보조선이 그려져 있는 것)를 재활용하면 편리합니다.



<학교수업 성공원칙 실천 체크의 예>

요일 날짜	월	화	수	목	금
교시	9/17	9/18	9/19	9/20	9/21
1	예	집	필	필	필
2	예	집	필	필	필
3	예	집	필	필	필
4	예	집	필	필	필
5	예	집	필	필	필
6	예	집	필	필	필

실천 날짜	월	화	수	목	금
	11/4	11/5	11/6	11/7	11/8
1	예	집	필	필	필
2	예	집	필	필	필
3	예	집	필	필	필
4	예	집	필	필	필
5	예	집	필	필	필
6	예	집	필	필	필
7	예	집	필	필	필



〈학교수업 성공원칙 실천 체크표〉

	원		화		수		목		금	
실천 날짜										
1	예	집								
	필	복								
2										
3										
4										
5										
6										
7										





2. 교과별 수업 스타일 파악하기

선생님의 수업 운영 방법을 파악하자

선생님마다 수업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매시간 꼭지시험을 봐서 지난 시간 수업 내용을 확인하는 선생님도 있고, 수업 시간 내내 무작위로 번호를 불러 질문을 던지는 방법으로 집중을 시키는 선생님도 있지요. 선생님의 수업 전략을 알면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style ①

수업 시작 전에 전 시간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가?

학기가 시작된 후 2주 정도는 과목별 선생님의 수업 진행 방식을 탐색하는 기간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 운영 스타일은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수업 시작 전에 전 시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지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체크포인트!

▶ 선생님이 설명으로 요약해 주시는 경우

이 경우 선생님은 전 시간의 수업 내용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또는 몇몇 학생에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요약을 해 주시더라도 머릿속에 복습이 잘 되어 있는 상태라면 설명하시는 내용이 더 잘 기억되지요. 따라서 쉬는 시간이라도 이전 수업 내용을 다시 훑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기습질문이나 꼭지시험을 보는 경우

이 경우는 전날 밤에 제대로 복습을 해야만 합니다. 답을 몰라서 머뭇거리는 등 불안감이 쌓이면 그 과목이 점점 싫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답을 맞추는 쾌감이 반복되면 그 과목에 자신감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style ②

수업 후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알려주는가?

수업을 마칠 무렵 다음 시간에 읽어 올 내용이나 과제, 다음 시간의 공부 내용을 공지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꼼꼼하고 체계적인 수업계획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입니다.



체크포인트!

이 경우는 선생님의 수업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읽어 오라고 한 것은 반드시 읽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미리 살펴보세요. 다음 시간이 되면 정말 선생님이 예고한대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style ③

수업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방법은?

수업 중에 연습문제를 풀어보게 하거나 번호 순서대로 책을 읽게 하는 등 수업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방법도 선생님마다 다릅니다.



체크포인트!

이 경우 만약 앞에 나가서 문제를 풀어보는 등의 수업활동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소한 그 수업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연습으로 학습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천 Tip】 이렇게 해 보세요~



1년 수업 계획을 이야기하는 첫 시간이 중요

많은 경우 첫 수업 시간에는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별 생각 없이 선생님 이름만 교과서에 적어 두고 말기도 하지요. 하지만 첫 시간은 진도를 나가지 않는 대신 그 과목의 수업이 1년 동안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개관을 듣는 시간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선생님의 1년 계획에 귀 기울이기

첫 시간은 그 수업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과목의 특징, 학기별 배우게 될 내용, 수행평가의 방법과 평가기준, 매 수업시간 준비해야 할 것, 실천해야 할 것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능동적인 학습태도는 수업 첫날부터 시작되지요. 선생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1년을 계획 하였는지 주요 내용을 메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 운영 방법에 따라 성적도 달라진다

Case



선생님의 기습질문 덕에 갖게 된 복습 습관

중3이 되는 재용이는 다른 친구들보다 국사를 잘합니다. 1학년 때 국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수업 덕이지요. 수업이 시작하기 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아무나 불러 질문하셨는데, 그 긴장감 때문에 매시간 복습했던 것이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자료를 자주 보여 주신 것도 좋았고, 그림을 그리며 설명하는 방법도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인터넷 강의나 학원수업은 전혀 듣지 않았는데도 시험을 보면 많이 틀려야 두 개 정도였지요.

복습의 성공 경험을 다른 과목에도 적용

이처럼 수업 운영 방법에 따라 과목별 공부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수업 시작 전에 이전 시간의 내용을 복습하면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성공 경험을 토대로 재용이는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을 파악하자

40~50분의 수업 시간은 주의집중, 지난 내용 복습, 학습목표 제시, 수업 내용 제시, 수행해 보기, 피드백, 수업 정리 및 과제 제시 등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수업 내용 제시'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가장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 주의할 점! 수업마다 다르게 접근하기

과목의 특성이나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그 방법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학생도 수업마다 다른 학습 모드를 택해야 합니다. 모든 수업에 같은 방법으로 집중하면 수업은 잘 들었는데 내 공부는 되지 않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수업 내용 제시 방법에 따라 성적이 달라진다

Case

수업은 재미있지만 점수는?

중2로 올라가는 수정이는 1학년 때 사회과목에서 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은 참 재미있었지요. 이런 저런 사례와 이야기를 많이 들려 주셨고 기사에 낫던 사진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험에는 그렇게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수업 내용에 감피를 못 잡다

첫 시험을 망친 후로는 이야기같은 수업도 짜증이 났습니다. 과학 선생님처럼 유인물을 나눠 주시는 것도 아니고, 판서도 칠판 여기저기에 설명을 하며 적는 정도였지요.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란 말인지 알 수 없었지요.

꼼꼼한 예습이 필요한 수업

이야기처럼 흘러가는 수업에서는 요점을 스스로 정리해야 하며, 반드시 꼼꼼한 예습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선생님의 재미있는 설명을 듣는다면, 선생님이 지루한 내용을 얼마나 노련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감탄하게 됩니다.



요점정리
꼼꼼한 예습~



style 1

이야기식 수업

이야기식 설명은 역사, 사회, 윤리 과목에서 주로 등장합니다. 순차적인 내용 진행보다는 전체적인 조망이 필요한 과목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한 시간의 수업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서 통째로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이런 방식의 수업에서는 단원의 흐름이나 구체적인 맥락을 놓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예습을 통해서 수업 중에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요약정리 등의 복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style 2

교과서 내용 진행에 충실한 수업

수업의 진도와 흐름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특히 국어나 영어과목의 수업은 교과서의 제시문을 토대로 진행되므로 필기도 교과서 위에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체크포인트!

이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원 간 통합이나 과목 간 통합 사고에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공부할 때에는 심화 문제풀이 등에 꼭 신경을 써야 합니다.





style ③

교과서와는 관계없이 유인물로 하는 수업

판서의 수고를 덜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바로 프린트물을 사용하는 방법이지요. 교과서에 구체적인 지식이 모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업시간에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내용이 곧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고 교과과정을 재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위 순서에 따라 펼쳐 보기 쉽도록 철해 두어야 합니다. 복습이나 시험공부를 할 때에도 수업에서 공부한 프린트물을 기준으로 해야 문제가 없겠지요?

style ④

멀티미디어 교구를 많이 활용하는 수업

그래프, 사진 등이 많은 수업은 슬라이드, 비디오자료 등 멀티미디어 교구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보고 듣는 자극이 다양하니까 집중도 잘 되지요.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본 것은 많은데 뭘 공부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체크포인트!

수업을 위해서는 이야기식 수업과 마찬가지로 꼼꼼한 예습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자료를 본다면 이해도 잘 되고 기억에 잘 남지요. 수업할 때 사용할 파일을 온라인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반드시 출력해서 내 손에 들고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



04

효과적인 '스스로 공부법'

아이의 자신감을 위해 선행학습을 한다면 학원에 맡기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스스로 하는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교과서 이해하기

교과서는 모든 공부의 중심!

아이가 '혼자 할 수 있을까?'하고 불안해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처음 배우는 건데 잘 못하면 어쩌니? 엄마가 도와줄게."하며 부담을 덜어 주세요.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도 읽고 생각하며 이전에 배웠던 것과 연결하면 충분합니다.



★ 아이들은 충분한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사고력이 있습니다. 불안감을 한번 깨고 나면 스스로 공부를 했다는 자신감이 생겨 어떤 공부라도 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요.



★ 스스로 공부법, 어떤 책이 필요할까?

'선행학습용' 교재는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 복습이나 시험공부를 위해서 볼 책을 미리 산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책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체크포인트!

- ① 기본적으로 교과서와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평가문제집을 구입합니다.
- ② 영어, 한문, 제2외국어와 같은 언어과목은 지습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 ③ 필요한 책 목록을 작성해 봅니다.
 - 지난 학기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에 따라 더 필요한 책도 있고
사지 않아도 될 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과서를 가볍게 읽고 문제를 풀어 보자

모든 공부의 출발은 교과서입니다. 배우지도 않은 교과서를 처음 보는 것이므로 구경하듯이 부담을 가지지 말고 읽으면 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연필로 가볍게 표시를 해 두고 그냥 넘어가세요.

☆ 처음에는 훑어보듯이 가볍게!

처음부터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체되고 지루해져서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지나치게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체크포인트!

처음에는 훑어보듯이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후에 문제를 풀면서 교과서를 다시 보게 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제 교과서를 찾아보면서 문제 풀기

교과서를 한번 대충 읽었다고 해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문제를 풀 때는 교과서를 찾아보면서 풀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제에 담긴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살피게 됩니다.



체크포인트!

문제는 교과서를 자세히 보기 위한 수단입니다. 문제집의 요약정리는 보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보게 될 것은 교과서이지 요약정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답을 맞춰 보기

틀린 게 나오면 다시 교과서를 찾아봅니다. 문제에 숨겨진 교묘한 함정에 빠졌거나, 또는 교과서의 내용을 정확히 읽지 않아서 틀린 것들이 대부분이지요.



체크포인트!

교과서 보기를 반복하면 헛갈렸던 부분을 더욱 자세히 보게 됩니다. 답안지는 채점할 때 외에는 가능한 한 보지 않도록 하세요. 왜 틀렸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답안지를 참고합니다.

필기하기, 교과서 다시 읽기



교과서에 연필로 필기하기

‘스스로 공부’를 했다면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수업에서 훌륭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체크포인트!

교과서를 읽고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밑줄과 물음표, 간단한 메모를 하세요. 수업을 들으며 수정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모두 연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교과서 읽기

이제 다시 교과서를 읽으면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게 되고, 문제에 나왔던 내용을 떠올리며 처음 읽었을 때와의 차이점을 느끼게 됩니다.



체크포인트!

스스로 하는 공부는 학교수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학습내용에 대한 바탕지식과 자신감이 만들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에는 교과서에 ‘수업시간에 집중하기’라고 써 놓으면 됩니다.



적은 분량으로 꾸준히 하기

스스로 하는 공부는 하루에 소단원 하나 정도면 적당합니다. 책을 넘겨보면 '몇 장 안 되는데?' 싶겠지만 교과서를 찾으며 공부를 해 보면 그것도 제법 힘이 듭니다.

☆ 하루에 소단원 하나만 공부하자

소단원 하나를 공부하는 데 한 시간이 넘지 않습니다. 마음은 하루에 열 단원이라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지요. 하지만 쉬는 시간, 식사, 독서 등 기본적인 생활을 감안하면 매일 빠지지 않고 하나씩 하는 것도 기특한 일입니다.



체크포인트!

우선 하루에 한 단원을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컨디션이 좋은 날, 여름방학에 비가 와서 시원한 날, 한 단원 분량이 적어 공부가 빨리 끝난 날 등 가능한 날에는 두 단원에 도전해 보세요.



☆ 다 푼 문제집을 개학 후 다시 풀어야 할까?

한 번 보았다고 내용을 모두 아는 것은 아니고, 반복해서 볼 때마다 배울 게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보던 책을 또 보기는 싫은 게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이 경우는 아이들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면 됩니다.



체크포인트!

이전에 공부하던 생각이 나서 더 공부하기에 좋다면 보던 책을 보면 됩니다. 반대로 새 책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똑같은 문제집을 한 권 더 사면 됩니다. 또한 이미 공부했던 책이라 양쪽 모두 복습 때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지므로 다른 출판사의 문제집을 한 권 더 사서 푸는 것도 좋습니다.



2. 과목별 ‘스스로 공부’ 전략

〈국어〉는 긴 문학작품의 전체 이해에 중심

국어는 단원별 특성에 따라 공부 방법을 다르게 해도 좋습니다. 말하기, 쓰기 부분은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 교과서를 읽고 지나가도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법은 헛갈리는 요소들이 있으니 다양한 문제를 풀어 보며 감을 잡아야 합니다.



‘스스로 공부’가 필요한 부분은 특히 문학

문학은 긴 작품이 교과서 여러 장을 차지하고 있어 몇 번을 쪼개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학생들은 밑줄 긋고 필기한 것만 기억을 하고 작품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체크포인트!

문단 배열하거나 작품의 주제 등 특별히 어렵지도 않은데 숲을 물어보는 문제들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이 스스로 작품을 읽고 느끼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품 전체의 줄거리를 기억하는 방법은?

우선 문학작품 부분만 교과서를 복사합니다. 작품 전체를 한 번 읽고 내용을 대충 파악한 후에는 복사한 교과서를 문단별로 잘라 보세요. 잘라진 문단 조각을 뒤섞어 놓고 퍼즐 맞추기 하듯 문단을 순서대로 맞추어 봅니다.



체크포인트!

문단을 순서대로 연결해야 하므로 작품 전체의 흐름을 계속 떠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부분 부분을 읽고 전체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해보면 작품 전체의 줄거리며 사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기억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학습효과는 뛰어 납니다.



☆ 문단 내용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이제 문단의 내용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먼저 잘라진 문단 조각을 노트에 붙입니다. 다닥다닥 붙여서는 안 되고 필기할 여백을 충분히 두며 한 페이지에 두 문단 정도를 붙이세요. 노트 여백에 그 문단의 중심 생각을 적어 보고 모르는 단어의 뜻을 찾아 씁니다.



체크포인트!

문단의 주제는 스스로 생각한 것을 씁니다. 그래야 수업 시간에 내가 생각한 것이 맞는지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참고서를 보고 베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필기는 반드시 연필로!

작품을 읽다 보면 중요한 기능을 하는 문장이 무엇인지, 결말의 단서가 되는 단어는 무엇인지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나름대로 표시해 두면 나중에 수업 듣는 재미가 커집니다. 그리고 필기는 모두 연필로 하세요. 수업을 들으면서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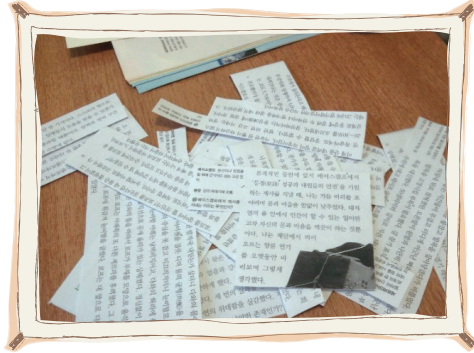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이 노트는 개학 후 수업 때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여백을 넓게 두어 지문 전체를 붙였으므로 교과서에 작은 글씨로 필기를 하느라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또 내가 미리 공부한 내용을 함께 볼 수 있으니 학습효과가 크지요. 깨끗한 교과서는 시험공부를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시험 직전에 공부한 내용을 교과서에 다시 적어 보면 총정리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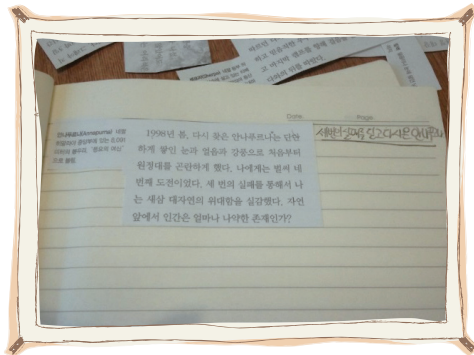


<교과서를 복사하여 문단별로 잘라서 맞추기>



- ▶ 문단 조각을 섞어 놓은 후 문단을 순서대로 맞춰 보세요.

<노트에 문단 조각을 붙이고 문단의 주제 적기>



- ▶ 연필로 필기를 해 놓으면 수업을 들으면서 수정할 수 있어요.



〈영어〉는 ‘나만의 자습서’를 만들자

영어도 국어와 비슷하지만 본문이 길지 않으니 문단 맞추기는 하지 않습니다. 교과서를 복사해 노트에 붙이되 충분한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그림을 잘라내면 교과서 본문 한 페이지가 노트 반쪽 분량이 되므로 적당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해석을 적자

먼저 모르는 단어, 숙어를 미리 공부한 후 본문을 읽으며 해석을 해 봅니다. 해석을 노트에 모두 적을 필요는 없고 헛갈리는 부분만 내가 생각하는 해석을 연필로 적습니다. 해석이 적힌 부분은 특히 수업을 잘 들어야 한다는 표시가 됩니다.



체크포인트!

개학 후에는 노트를 교과서 대용으로 씁니다. 수업 중에는 모든 필기를 노트에 하고, 깨끗한 교과서는 시험공부 최종정리용으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나만의 자습서가 만들어집니다.

〈사회, 과학〉은 단원별 핵심어를 활용한 개념정리

사회, 과학은 핵심용어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특히 과학은 원리, 법칙 안에 공식과 주요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과서 속의 두꺼운 글씨만 제대로 공부해도 훌륭한 학습이 됩니다.



핵심어 앞뒤의 내용을 정리하자

노트에 단원명을 적고 그 단원 안에 나오는 두꺼운 글씨로 된 핵심어들을 옮겨 적습니다. 다음에는 핵심어의 뜻을 적는데, 인터넷 검색이나 사전 찾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과내용에 해당하는 핵심어의 가장 정확한 뜻은 그 핵심어 앞뒤에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핵심어 앞뒤의 내용을 정리하여 교과서 설명만으로 개념정리를 하는 것인데, 단순하지만 학습효과는 큼니다.



체크포인트!

단어 뜻을 적다 보면 적절한 설명을 위해 예가 필요하기도 하고, 앞에 설명한 관련 용어를 언급할 때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게 되지요. 단원이 끝날 때마다 한 페이지씩 여백을 두어 수업시간에 추가로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세요.



〈수학〉은 개념이해와 기본문제 풀이

수학을 혼자서는 공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려운 문제에 기가 죽어서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는 공부에서는 개념이해와 기본문제 풀이 정도만 해도 훌륭합니다.



교과서와 문제집을 병행해서!

수학만큼은 교과서보다 문제집이 공부하기에 편리합니다. 문제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교과서의 개념설명과 기본문제를 먼저 공부한 후에 문제집을 보아야 합니다. 문제집의 개념 설명은 교과서의 설명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도 보도록 합니다.



개념이해와 기본문제 풀이

개념이해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개념이해가 안 되었다고 해서 문제풀이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를 먼저 풀고 개념 설명을 다시 읽어 보아도 좋습니다. 예습할 때는 개념이해와 기본문제 풀이로 간단히 하세요. 응용문제, 연습문제 등은 개학 후에 복습을 할 때 풀도록 합니다.

● (학습 Tip) 이렇게 해 보세요~



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이 필요한 과목을 물어보면 단연 수학이 첫 번째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학기 중에는 충분히 공부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그 다음이 영어입니다. 스스로 하는 공부를 시작할 때는 한 과목만 골라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완성도가 높고 '혼자서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다음에는 2과목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방학에는 자기주도학습을 해 보자

Case



방학 기간, 선행학습에 대한 고민

외고 1학년에 다니는 큰딸은 중학교 내내 사교육 없이 공부를 했어요. 중1 초반에는 학원에 다니기도 했는데 숙제가 많아 힘들어 해서 집에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방학이 되자 다른 아이들이 수학 학원을 다니며 선행학습을 하니까 큰딸도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수학은 학원 대신 문제집으로 차근차근

학원은 가기 싫다고 해서 문제집을 사다가 조금씩 풀고, 모르는 것은 엄마 아빠가 조금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매일 했는데도 진도는 많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개학이 다가오는데 절반도 하지 못했지요. 그래도 억지로 많이 풀게 하면 안될 것 같아서 그냥 평상시처럼 하다가 학교에 갔습니다. 뒷부분은 개학 후에도 계속 풀어 나갔어요. 매일 학교에서 배운 만큼 복습도 해야 하니 그만큼 공부분량이 늘어난 것이지요.

결과는 매우 성공적!

개학을 하고 수업을 들어 보니 먼저 공부했던 부분은 훨씬 이해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시험성적도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그 이후부터는 방학 때마다 스스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은 짧고 더워서 진도를 더 못 나가요. 그러니까 '수학은 절반만 해도 성공이다'는 생각으로 부담 없이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개학 후에 계속 풀어 나가면 됩니다. 연습 효과도 있어서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방학에는
자기주도학습



05

사교육을 뛰어넘는 자기주도학습

사교육에 공부를 맡겨 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 내 아이의 성공을 원한다면 자기주도학습을 가르치고 학원 대신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1. 부모가 먼저 생각을 바꾸자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맞벌이 등으로 인해 초등학생들이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사교육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사춘기를 지나서 스스로 공부할 만한 사고력을 갖춘 후에도 학원에 의존하며 자기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선행학습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선행학습이 사교육과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가 특별히 원하지 않더라도 학원 등의 사교육기관에서는 선행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연습, 자기주도학습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시험을 앞두고 공부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부하며 익혔던 자기극복, 노력에 대한 기준, 성실함, 시간관리, 감정관리 등 모든 경험이 자기주도능력으로 누적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아이는 공부도 잘하게 되고, 성인이 되어 일도 잘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갖게 됩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연습을 도와주자

아이에게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시간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연습과 복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하며 내 공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키워 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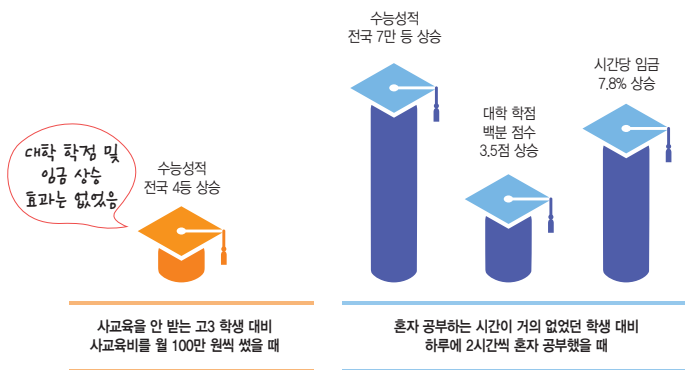
부모의 태도 변화가 먼저!

내 아이가 매일의 공부는 물론 학교생활, 쉬는 시간, 용돈, 친구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자원을 요령 있게 다스릴 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태도 변화가 먼저입니다.

★ 사교육에 맡기면 효과가 있을까?

사교육은 투자한 시간과 비용 대비 학습효과는 극히 작습니다. 반대로 자기주도학습은 주체성을 갖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길러 줍니다. 따라서 학교성적 뿐 아니라 대학 진학 시의 학점, 취업 후의 임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사교육의 효과 분석>



<출처> 김희상(2010). 학업성취도, 진학 및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 분석. KDI 연구보고서.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2011). 왜 사교육보다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한가?.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 포럼 자료집.
 ▶ 사교육비와 효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사교육비와 효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금 내 아이의 사교육비로 얼마를 지출하고 있나요? 대부분은 비용을 들이는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 본 <사교육의 효과 분석> 내용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어 놓는 결과입니다.

사교육비 월 100만 원이면 전국 4등 상승?

조사에 의하면 사교육비를 월 100만 원씩 쓴 고3 학생들의 경우,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에 비해 수능 성적이 전국 4등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학급에서 4등도 아니고 70만 명에 가까운 전국 수험생 중에서 겨우 4등이 오른 것은 다소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사교육에 의해 실력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교육의 힘은 대학, 직장에서도 무의미

100만 원의 사교육비가 아이의 자기주도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기여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대학에 진학한 후에 학점을 더욱 잘 받거나, 또는 취업한 후에도 임금 상승에 영향을 주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루 2시간 혼자 공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

반대로 하루에 2시간씩 혼자 공부를 했던 학생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던 학생에 비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수능 성적이 전국 7만 등이나 상승한 것입니다. 이후 대학 학점 백분 점수도 3.5점이 올랐으며, 취업 후 시간당 임금도 7.8%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갖자

태도는 곧 성적과 직결된다

요즘 아이들은 은연중 선생님을 무시하거나 학교를 우습게 여기는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평소 언어 습관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삼아 하는 말 같지만 그로 인해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 생활 태도와 수업 태도는 동일!

담임 선생님을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지 않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담임, 담탱이 정도만 해도 다행입니다. 아예 자기의 친구를 부르듯이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선생님 이름이 김형석이라면 “형석이 왔나?”, “오늘 형석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냐?”하는 식이지요.

예의와 인성은 두 번째로 치더라도 그러한 태도는 아이의 공부와 성적에도 직결됩니다. 뒤에서 선생님 욕을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수업 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집에 가서 남몰래 공부를 열심히 할 리는 없기 때문이지요.

불순한 아이 뒤에는 불순한 부모가 있다

Case

집에서 선생님 욕을 한다면, 아이들 역시 학교에서 선생님을 봐도 인사를 하지 않아요. 부모들 눈에는 학교의 어떤 것이라도 부족해 보일 수 있겠죠.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 나쁜 태도를 갖게 되면 품행이 좋지 못하게 되고, 그런 아이들의 성적은 대체로 낮습니다.

— 퇴직을 앞둔 한 교장선생님 —



★ 학교에 대한 부모의 신뢰가 우선!

무엇보다 항상 내 아이에게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내 아이가 공부하기에 가장 적당한 속도와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과목별 선생님들은 충분한 실력과 노련한 경험을 가진 분이라고 아이에게 말해 주세요. 학교가 즐겁고 편안해야 학교 수업에 애정이 생기고,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학교는 즐거운 곳이라고 말해 주기

Case

학교를 좋아하는 세 아이

저는 세 아이를 모두 사교육 없이 키웠습니다. 세 아이 모두 전교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고 있지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아이들이 학교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학교가 즐거운 곳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답니다.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아이들

유치원을 좋아했던 아이에게 학교는 유치원의 연장이며, '선생님은 엄마처럼 너를 사랑하고 새로운 것을 많이 알려 주시는 분'이라고 말해 줬습니다. 학교가 무섭거나, 선생님이 무섭고 어렵다는 말은 하지 않도록 늘 주의했어요. 사춘기 아이들은 학교가, 내 삶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엄마들이 너무 멀리 있는 걸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매일 가는 학교가 즐거워야지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3. 학원 대신 초등돌봄교실을 활용하자



학교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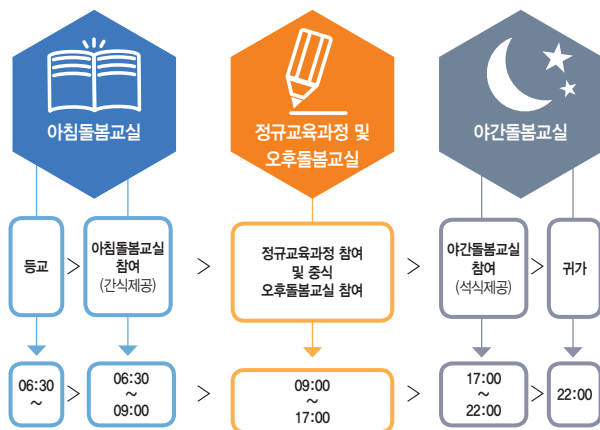
학원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사춘기를 지나도 학원에 의존하며 자기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체능이나 꼭 필요한 사교육이 아니라면 초등돌봄교실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맞벌이 부부라면 초등돌봄교실이 효과적이다

전국 초등학교의 약 96%는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합니다. 방과후 오후돌봄교실, 일찍 출근하는 부모를 위한 아침돌봄교실, 늦게 귀가하는 부모를 위한 야간돌봄교실까지 다양합니다.

★ 인성과 생활관리를 위한 좋은 지혜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간식을 먹고, 학원들을 돌아 보면 아이는 텔레비전과 컴퓨터에 빠지게 됩니다. 초등돌봄교실이라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숙제하고, 책 보고 간식 먹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성과 생활관리를 위해서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 등교 시간 및 귀가 시간은 부모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함.



4. 학원의존증, 빨리 벗어나자

내 아이 '만성 학원의존증' 체크리스트 5

학원이 일상화된 부모들은 학원을 보육의 기능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이젠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것이 신기한 지경에 이르렀지요. 많은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는 지금 만성 학원의존증에 걸려 있지 않을까요? 함께 체크해 보세요.

①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다

… Yes ☐ No ☐

요즘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어딘가를 다닙니다. 피아노나 태권도 등 무언가를 배우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놀러, 다양한 자극을 위해, 아이를 방치할 수 없어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맥락은 자연스럽게 교과공부를 위한 공부방, 학원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 체크포인트!

공부는 누군가의 직접적인 도움보다 아이의 사고가 더 많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성장하고 달라졌으므로 지금까지 아이를 보조해 왔던 여러 가지 장치들을 떼어내 보세요. 자전거로 치자면 보조바퀴를 떼고 마음껏 달릴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2 학원을 안 가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한다

→ Yes ☐ No ☐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정해도 잘 실천하지 못하고, 검사하는 사람이 없으니 의무감도 느끼지 못하는 셈입니다. 학원의 숙제와 문제풀이에 의존해서 성적을 유지해 왔다면 앞으로의 공부는 점점 힘겨워집니다.



체크포인트!

- ▶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스스로 정하도록 하세요. 부모는 매일의 공부를 살피되 '검사' 대신 '칭찬'을 하여 공부에 탄력을 주면서 점차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 혼자 책 한 권을 다 끝낼 수 있고, 학원 다니는 아이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금방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 단계까지는 부모의 섬세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3 학원을 다니지는 않지만 마음이 불안하다

→ Yes ☐ No ☐

학원에 다니지 않더라도 학원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학원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 ▶ 아무리 격려를 해 줘도 아이가 불안해서 학원에 매달리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는 공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로움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니 아이의 정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4 성적이 떨어질 경우 학원을 옮긴다

→ Yes ☐ No ☐

성적표가 나온 후에 학원을 옮기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가 나서서 학원을 옮기게 한다면 자기주도학습의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학원은 자녀의 성적을 보장해 주는 보험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체크포인트!

성적이 떨어졌다면 과목별로 무엇이 부족했는지 원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에 따라 그 다음 시험의 공부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 과정을 모두 생각하고 학원을 옮기면 아이는 남 탓하는 것만 배우게 됩니다. '내 성적은 내 책임'이라는 성숙한 사고를 가르쳐 주세요.



같은 학원을 쉬지 않고 6개월 이상 다녔다

→ Yes ☐ No ☐

같은 학원을 한 학기 이상 다녔다는 것은 '학원 생활'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원을 습관적으로 다니지 않도록 수시로 아이와 함께 학원 생활에 대한 재평가와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학원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공부하는 좀더 긍정적인 학습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포인트!

부모도 아이의 진도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늘 공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공부한 내용과 관련된 것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습니다.



‘효과적인 학원 활용’을 위한 자가 점검

학원이 일상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아이가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학원을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3개월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방학이나 시험 등 공부의 목표와 성격이 바뀔 때에는 주기와 상관없이 따로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학원 활용 점검표〉

나는 학원을 왜 다니는가	지금 다니는 학원은 나의 필요를 얼마나 충족시키는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점수	이유는?	
수학 학습방법을 배워서 수학 공부가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다.	65/100	여전히 수학이 어렵다. 숙제가 너무 많아서 집에서는 다른 공부를 할 수 없다. 시험 기간에 시험 대비를 혼자 안 해도 되는 것은 좋다.	1. 혼자서 교과서 복습부터 다시 시작해 본다. 2. 쉬운 반으로 내려간다. (이건 싫다.) 3. 학원을 옮겨본다.





나는 학원을 왜 다니는가?

선행학습, 취약과목 성적 올리기, 진학 정보 등 학원에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다니는 학원에 한정하지 말고 아이가 원하는 학습 수준, 학습 목표를 고려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 만약 취약 과목 때문에 학원을 다닌다면?

‘수학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라고 적는 것보다는, ‘수학 학습 방법을 배워서 수학 공부에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다’와 같이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적으세요.



지금 다니는 학원은 나의 필요를 얼마나 충족시키는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 상황을 점검하는 평가위원이 되어 보는 단계입니다. 앞에 적었던 학원 다니는 이유에 대한 만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냥 그렇지. 대충 만족해’라는 답보다는 그 만족도를 수치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포인트!

▶ 만족도 기재 방법은?

100점 만점에 75점이라면 75/100, 10점 만점에 8.5점이라면 8.5/10라고 적으면 됩니다.

▶ 그렇게 점수를 준 이유는?

그렇게 점수를 준 이유는 무엇인지 꼭 적어 보세요. 무엇이 부족한가,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어떤 점이 좋아서 높은 점수를 주었는가, 아쉬운 부분은 어떤 것인가, 혹은 선생님이 무섭거나 학원에 애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충족되지 못했다면 그 대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필요에 따라 학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의 대안보다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세요. 한 번에 실천할 수 없다면 단계별 실천 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이상적인 대안보다는 당장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포인트!

학원에 대한 생각은 늘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성 학원의존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학원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얼마나 다닐 것인지 등을 냉정하게 고민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세요.



Part I _ 선행학습 제대로 알기

Part II _ 스스로 주도하는 파워학습전략

Part III 나에게 꼭 맞는 상황별 맞춤학습법





06. 방과 후 매일 학습법

1. 학교 후에는 숙제부터 하자
2. 스스로 정한 공부를 시작하자
3. 매일 복습법
4. 매일 예습법
5. 공부계획 세우기 6단계
6. 주간 학습 플랜 세우기

07. 방학 기간 집중학습법

1. 취약 부분 복습하기
2. 체험학습으로 뇌를 자극하기
3. 방학숙제 효과적으로 하기
4. 개학 준비하기

08. 시험 준비 맞춤학습법

1. 시험공부는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
2. 과목별 체크 포인트
3. 시험 후 학습 관리 방법
4. 효과 있는 상과 벌은?

06

방과 후 매일 학습법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공부'입니다. 어떤 공부를 얼마나 해야 할 지, 시험은 어떻게 준비할지 상황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법을 알아봅니다.

1. 학교 후에는 숙제부터 하자

숙제는 학교 수업의 연장

학교를 마치면 바로 학원 버스를 타는 요즘 아이들은 방과 후에 시간이 주어져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릅니다. 우선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숙제부터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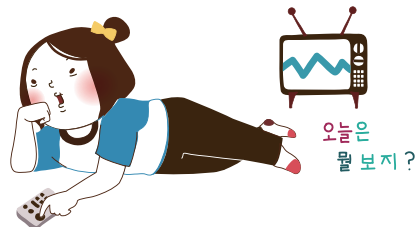
★ 숙제는 그날 그날 해결하자

숙제에 대한 설명과 내용의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숙제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숙제를 미뤄 두면 다른 공부에도 온전히 집중할 수 없습니다. 미루다가 늦은 밤에 숙제를 펼치면 '내일까지 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 숙제를 하면서 얻어야 하는 학습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되지요.



체크포인트!

▶ 검사일까지 여유가 있더라도 숙제는 받아온 날 해결한다는 원칙을 지키도록 지도하세요. 숙제를 미리 해 두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서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 예상보다 분량이 많더라도 검사일까지 나누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숙제도 받은 날부터 시작하자

체험학습 보고서, 독서기록, 영어일기 등 한 학기 내내 해야 하는 숙제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학기 초에 내 주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무렵에 수행평가 점수 반영을 위해 검사를 합니다. 이런 숙제도 받은 날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우선 전체 숙제를 위한 틀을 마련해 두세요. 독서기록이라면 어떤 책을 읽을지 대략의 목록을 작성하고 노트를 마련해 두는 것이지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점점 숙제의 질이 향상 됩니다.

[Q & A]



조금 쉬었다 한다면 바로 숙제를 하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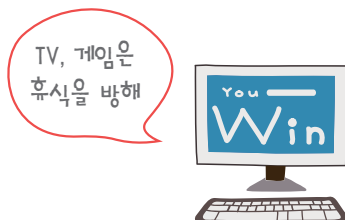
중1 딸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에게 학교에 다녀오면 바로 숙제를 하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아이는 조금 있다 하겠다면서 냉장고부터 열어요. 간식은 엄마가 챙겨줄 테니까 열린 숙제 부터 하라고 하면, 알았다고 대답만 하고는 소파에 누워 버립니다. 매일 이렇게 다툼이 벌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을 주세요

학교에서는 다양한 자극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은 충전을 원합니다. 특히 내향적인 성향의 아이라면 더욱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TV, 게임은 금물!

하교 후 공부의 순서를 정하자면 숙제가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바로 책상에 앉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잔소리를 못 이겨서 책상에 앉더라도 집중력은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요. 30~40분 정도는 간식을 먹고 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단, TV나 게임은 온전한 휴식을 방해하므로 삼가야 합니다.



숙제는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Case

초등학교와는 다른 중학교 숙제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그날 그날 검사하는 숙제가 전부였는데 중학교에 입학하니 무척 달랐어요. 두 달 후에 검사할 것들을 학기 초에 알려 주기도 하고, 또 제출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니다. '중간고사 전까지' 이런 식이라서 계획을 세우기가 애매하더라고요.

빨리 마지면 좀 더 보완할 수 있다

우선 숙제를 빨리 시작해서 중간고사보다 훨씬 빨리 끝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숙제를 너무 빨리 가져왔는지 선생님이 놀라시고 칭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점을 더 보충하면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 부분을 더 준비하고 다시 제출했더니 숙제 점수가 좋았습니다.

미리 제출하는 습관 들이기

생각해 보면 참 잘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늦게 제출하는 숙제도 미루지 않고 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숙제를 빨리 내면 선생님이 칭찬을 해 주시니까 아이도 기분 좋아하지요. 미리 제출할 경우 선생님들은 보통 다른 학생들 숙제와 함께 평가하기 위해서 다시 돌려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더불어서 보충할 점을 알려 주시기 때문에 공부도 더 하게 되지요. 그리고 더 완벽한 숙제를 할 수 있어서 점수도 잘 받게 되는 것 같아요.



2. 스스로 정한 공부를 시작하자

스스로 정한 공부란?

‘스스로 정한 공부’는 말 그대로 내가 정한 공부입니다. 따라서 학교숙제, 학원숙제는 물론 엄마가 내 준 숙제도 제외됩니다. 완전한 자율 의지로 하는 학습지나 인터넷 강의 등은 스스로 정한 공부에 해당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제외됩니다. 이렇게 다 빼고 나면 아이 스스로 정해서 하고 있는 공부는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되지요.

★ 사교육부터 줄이기

이제 서서히 내 공부의 터를 다져야 합니다. 즉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학원이 시키는 대로 하던 타율적인 공부를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 체크포인트!

▶ 사교육에 의존하던 시간들을 단계적으로 자신만의 공부시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주중에는 학교 수업과 내 공부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하루 3시간 투자하기

고3 수능 모의고사에서 전국 석차 상위 0.1%의 성적을 내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은 하루에 3시간 정도입니다. 고3은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학교수업이 이어지지요. 따라서 온전히 내 공부에 쓰는 3시간이란 저녁식사 이후 잠들기 전까지 거의 모든 시간이나 다름 없습니다.

✓ 체크포인트!

▶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쓰는 3시간과 보통의 학생들이 쓰는 3시간은 효율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어려서부터 스스로 공부하는 연습이 되어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나에게 맞는 공부방법 찾기

나에게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어떻게 공부할지, 어떻게 하면 집중을 잘할 수 있는지 등 나에게 맞는 공부를 찾아서 하면 더욱 질 높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를 정해 보라고 하면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공부할지 생각하는 것부터가 훈련의 시작입니다. 스스로 정한 공부의 1순위는 그날 배운 것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영문법이나 수학 심화 문제 같은 추가공부는 그 다음에 덧붙여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 상위 0.1% 고등학생들은 뭘 공부할까? 그들의 공부는 정직하고 소박하고 성실합니다. 한 학생은 EB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배운 거 복습하고 모르는 문제 다시 풀어 보는 것만 해도 바빠요. 학원 갈 생각은 아예 안 해 봤어요. 이걸 안 하고 어떻게 다른 공부를 해요.”

★ 얼마나 해야 할까?

몇 시간을 공부를 하던지 부모가 정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아이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 그 중에서 자신의 힘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파악해 보세요.



체크포인트!

▶ 처음에는 20~30분으로 시작하세요. 온전히 스스로 정한 공부에 집중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과목을 복습하는 것이 어렵다면 한두 과목을 지정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 나가세요. 아이가 스스로 정한 공부를 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딱 30분만 공부하자

Case



매일 30분씩만 하고 싶은 공부하기

중2 남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에 대한 부담이나 긴장감이 전혀 없습니다. 중학생이 된 후에도 학원도 다니지 않고 학교 다녀오면 숙제만 하고 그냥 놀았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매일 딱 30분 쉼만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아무거나 하라고 했습니다.

복습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기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저에게 묻더군요. 배운 부분 복습을 하라고 했더니 또 복습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읽고 문제를 풀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30분 동안 한 과목 하기도 힘들어 하더니 점점 속도가 빨라지더군요. 30분이 넘으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더니, 30분 안에 복습을 다 끝내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법 개척하기

중2가 된 지금도 하루 30분만 공부하지만, 같은 시간 안에 훨씬 많은 공부를 해요. 30분을 10분, 5분으로 나눠 과목 분배를 하고 배운 만큼 조금씩 영어 본문도 외웁니다. 비록 30분이지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 대견합니다.

기다리고 지켜봐 주기

2학기부터는 40분으로 늘려보는 게 어떨겠냐고 했더니 좋다고 합니다. 공부 시간 10분 늘어나는데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충분히 자기 힘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속이 터질 때도 많지만 아이가 충분히 기다리고 지켜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3. 매일 복습법

학교 수업자료는 복습의 기본

숙제를 모두 마쳤다면 이제 스스로 정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매일 복습이고, 배운 부분은 그날 바로 공부해야 합니다.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것은 복습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진도에 맞추어 문제풀이를 하는 것인데, 평소 이렇게 해 두면 시험 기간이 되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학교 수업자료를 가져온다

복습을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봤던 교과서, 프린트, 노트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하루 5~7 교시 중 실습으로 지나간 미술, 음악, 창의 시간이나 운동장에서 보낸 체육 시간 등을 빼고 나면 실제로는 몇 과목 되지 않습니다.



체크포인트!

교과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 해도 그날 수업, 다음날 수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잠들기 전에 책가방을 챙기게 되어 학교수업과 과목별 진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생깁니다.



그날 배운 부분의 문제를 골라 풀다

문제풀이를 할 때에는 그날 배운 부분의 문제만 골라서 풉니다. '오늘 뭘 배웠지?' 생각하며 문제를 찾는 것부터가 공부의 시작입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 훑어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다음 시간에 배울 것들도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체크포인트!

문제집 구성이 단원별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학교에서 한 단원을 마칠 때를 기다렸다가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 수업한 날짜와 시간 차이가 나서 반복효과가 떨어집니다. 또한 문제를 풀며 교과서를 찾아보는 과정이 모두 생략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 학교 수업자료를 참고하여 풀다

문제를 풀 때에는 문제집의 요약정리나 해설을 보지 않고 교과서와 프린트물, 노트를 찾아 보면서 풋니다. 문제를 통해 학교 수업을 다각적으로 반복해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를 다시 볼 때에도 해답지 대신 교과서, 프린트, 노트를 찾으며 다시 공부합니다.



체크포인트!

후루룩 문제를 풀고 “다 했어요” 하는 식으로 검사를 받기 위해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가도 교과서는 깨끗하고 문제집으로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집을 풀었으니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집은 참고용이고 항상 학교 수업자료가 먼저임을 강조해 주세요.

☆ 복습용 교과서가 따로 필요할까?

부모가 자녀의 학습을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초등 저학년 무렵까지는 집에 교과서가 따로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 고학년만 되어도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교과서를 들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포인트!

수업시간에 밑줄 긋고 필기한 내용, 접어 둔 부분, 낙서의 흔적들도 모두 수업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단서가 됩니다. 집에 따로 마련한 깨끗한 교과서는 학교수업을 재생하는 반복효과를 내 주지 못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가 귀찮다고 해도 그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교과서를 챙기며 내 공부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빠뜨린 부분 복습하기

매일 복습은 오늘 수업한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 부분에 풀지 못하고 남은 부분이 있더라도 밀린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고 오늘 공부할 분량을 공부해야 합니다.

★ 복습을 빠뜨렸다면?

빠뜨린 부분은 오늘 복습을 모두 마친 후에 합니다. 밀린 분량이 많다면 주말이나 공휴일을 활용해야 합니다. 밀린 복습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일에 학교행사로 수업이 없는 날, 또는 그 과목 수업은 있었지만 비디오를 보는 등 진도가 나가지 않은 날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말, 공휴일을 맘 놓고 쉴 수 있습니다.

✓ 체크포인트!

▶ 놀고 싶은 마음을 참아가며 공부를 하는 것이니 빠뜨리는 일도 흔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냥 기분이 안 좋기도 하며 숙제가 많은 날도 있습니다. 복습을 빠뜨린 날은 과목과 교과서 페이지 등을 메모해 두고 가능한 한 빨리 보충하도록 합니다.

★ 빠뜨린 복습 메모하기

복습을 하지 못한 날은 빠뜨린 복습을 반드시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선 다음에 복습을 할 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와 문제집을 펼쳐보며 해당 페이지까지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빠뜨린 부분을 기억하고 공부할 분량을 가능하게 됩니다.

✓ 체크포인트!

▶ 직접 실천해 보면 좋은 습관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복습을 쉬어야지' 하고 기록을 하다가 생각보다 양이 적어서 그 자리에서 몇 문제를 풀고 복습을 끝내 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빠바쁘진 복습 기록하기 양식>

[illegible]

4. 매일 예습법

매일 복습이 끝나면 바로 예습

매일 예습과 복습만 제대로 해도 공부 분량이 상당합니다. 더 이상의 공부는 지치고 지루해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특히 예습은 한꺼번에 해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습의 기본은 교과서 읽기

매일 복습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예습을 합니다. 다음에 나갈 진도를 미리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국어와 영어는 본문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예습과 복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받아 둔 프린트가 있다면 프린트물도 읽어 보아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예습해 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예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수업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므로 예습과 수업에 재미가 붙습니다.



나만의 표시를 해 둔다

예습을 할 때는 수업을 듣는 상황을 떠올려야 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수업을 이해하기 어려우니 미리 뜻을 찾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밑줄, 설명을 잘 들어야 할 것 같은 부분은 물음표, 이렇게 자신만의 표시를 해 두면 수업시간에 유용합니다.



체크포인트!

▶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습은 수업 집중을 유도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완벽하게 공부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매일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 다음 수업을 예상해 본다

선생님마다 수업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문제풀이를 시키는 선생님, 기습질문을 하시는 선생님, 사진이나 동영상에 자주 보여주는 선생님 등입니다. 예습을 하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실지 예상해 보면 재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리 내서 읽어 보라고 하실 거 같은데?’, ‘여기서는 암석 사진들을 보여 주시겠지?’ 이렇게 수업을 예상해 보면 수업을 기대하는 마음도 생기고, 수업 중에도 나의 예상대로 되는지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수준에 맞게 강약을 조절하세요

C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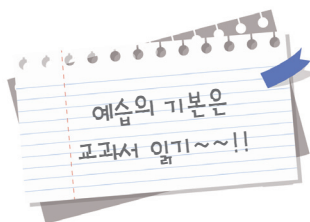
수업 집중도를 높여 주는 예습, 복습

흥미가 있고 성적도 괜찮은 과목이라면 예습을 깊게 해 보세요. 스스로 공부를 충분히 한 후에 수업을 들으면 수업이 복습의 효과를 냅니다. 자신의 예습에 틀린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할 수도 있지요. 반대로 자신도 없고 성적도 별로인 경우라면 혼자 예습을 할 의욕이 안 생기겠죠. 그럴 땐 복습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습을 하면서 ‘아~ 수업시간에 한 얘기가 이거였구나’ 하면서 내 공부로 만들어 가는 거지요.

예습과 복습의 강약 조절하기

예습과 복습은 그 자체로 수업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기능을 합니다. 때문에 예·복습 없이 수업을 들으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도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둘 중 하나라도 반드시 하세요. 자신의 수준에 맞게 예·복습의 강약을 조절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학습효과도 키울 수 있습니다.

- A중학교 수학교사 -



5. 공부계획 세우기 6단계

공부계획에도 순서가 있다

동그라미 계획표가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런 계획표가 나오게 된 근거를 스스로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왜, 어떻게 공부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정한다

Step 1

공부계획은 무엇을 공부할지 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공부, 이미 배운 것을 심화학습하기 위한 공부, 교과과정과 상관없지만 스스로 하고 싶은 공부 등이 있습니다.

〈예시〉 자기주도학습을 한다면?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간단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처럼 학습 수준을 정한다.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정한다

Step 2

이제 공부할 교재, 공부의 순서, 공부 방법 등을 정합니다. 공부계획의 절차 중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생각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 보세요.

〈예시〉 공부 순서, 방법 등을 정하는 예

- 교과서를 한 번 훑어 본 후에 문제집의 기본 문제를 풀기
- 모르는 문제는 다음날 학교선생님께 물어보기



아이가 하고자 하는 공부에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념이해를 한 후 문제를 푸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지만, 다양한 문제를 풀어서 응용력을 높이하고자 한다면 문제를 먼저 풀고 헛갈리는 사항에 대해서만 요약정리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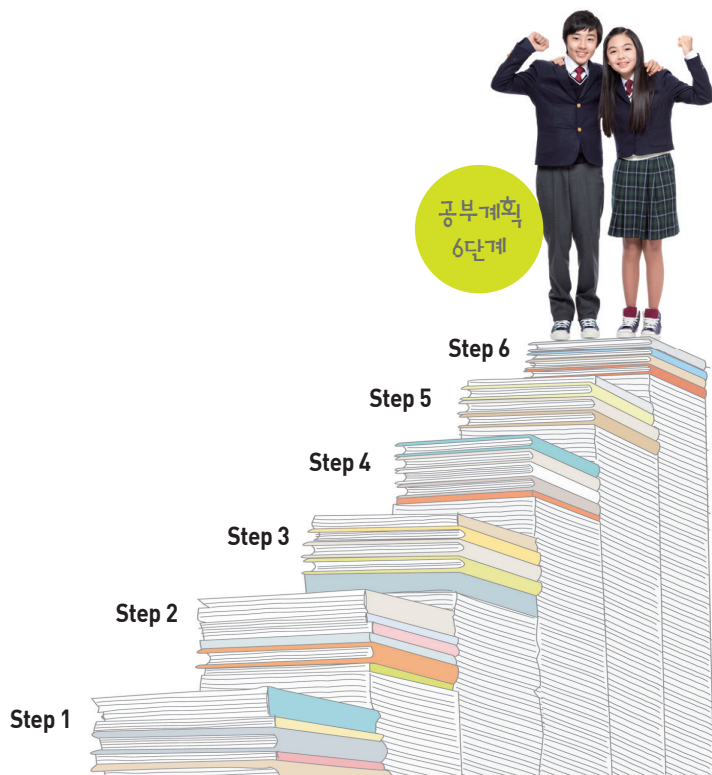
언제
공부할 것인지 정한다

Step 3

이번에는 위에서 생각한 공부를 언제, 얼마나 할지 정하되 아이의 일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의 일주일 일정을 점검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 봅니다. 주중에는 학교와 학원 등으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 하루에 1~2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많은 주말이나 연휴에는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 봅니다.

〈예시〉 영어 단어를 영영사전을 찾으며 익히는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 영어 단어 5개를 공부하는 데 15분이 걸린다.
- 따라서 영어 단어 공부는 매일 30분씩 하면 10개 정도의 단어를 외울 수 있다.
- 이제 몇 시에 실천할 것인지 아이의 하루 일과에 따라 결정한다.



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한다

Step 4

쉬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공부시간만 세우고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해야지 무슨 인터넷이야'라는 식으로 다짐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인터넷, 텔레비전, 낮잠 등 휴식시간을 계획하지 않으면 평소 생활과는 다른 계획표가 되어 버려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평소 즐겨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의 이용 시간을 체크하였다가 공부계획을 세울 때 함께 고려하세요. 일요일 저녁에 하는 오락프로그램을 매우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그 시간에는 공부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부계획은
계속 수정한다

Step 5

공부계획대로 직접 실천을 해 보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획대로 하지 못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단어를 외우는 데 계획했던 시간보다 더 걸렸을 수도 있고, 공부를 하기로 한 시간에 잠이 쏟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 공부계획 수정하기

- 실현하지 못한 이유를 메모한 뒤 반복되면 계획을 수정한다.
- 어려움 없이 실현할 수 있는 공부는 분량을 조금씩 늘려 본다.
- 매주 반복되는 비슷한 공부계획이 지루하면 요일별로 공부 과목을 바꾸어 본다.

학습계획을 실천했는지
스스로 평가한다

Step 6

주말에는 일주일 동안의 실천 상황을 점검합니다. 수정이 많았던 부분은 다음 주 계획에 반영하고 전반적인 학습 태도도 스스로 평가해 봅니다. 가족과 함께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 **【학습 Tip】 장기계획보다는 하루 계획에 충실하자**



1년 단위의 학습 계획표가 늘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학의 공부 흐름과 방향을 정확히 두되, 작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짧은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성공 경험을 늘려 나가세요. 프랭클린 폴라너의 개발자이자 시간관리 전문가인 타이렐 스미스 박사는 한국 청소년들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를 위한 시간관리 계획은 1년 단위로 짜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날마다 계획했던 목표를 이루면서 매일매일의 승리를 맛보는 게 중요하죠.”

〈학습계획 실천 평가표〉

질문	답	이유
목표를 이루는 전 과정 중 가장 불편했던 것은?		
계획 중 실천하기에 가장 불편했던 점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실천 항목은?		
추가되어야 할 과정은?		
내가 생각해도 기특한 점은?		
나의 어떤 점을 가장 혼내고 싶은가?		
다음 학습계획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총 평		



6. 주간 학습 플랜 세우기

일주일을 구체적으로 그려 보자

공부계획은 자연스러운 일상 생활을 바탕에 두어야 합니다. 평소 늘 보는 드라마, 취침 시간, 식사 시간을 중심으로 하고 공부를 하나씩 추가해 나갑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며 공부의 기본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 고등학생 주간 학습 플랜의 예

아래의 계획표는 수년 간 실천과 수정을 반복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공부계획표는 백지에 식사, 취침 시간 정도만 표시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시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6	:00 ~ :30	① 하교 후 간식 및 휴식					④ 주중 미린 공부 및 자율 시간	⑥ 가족과 함께 전일 휴식
	:30 ~ :00							
17	:00 ~ :30	② 과제, 복습 문제 풀이					⑦ TV 및 저녁식사	
	:30 ~ :00							
18	:00 ~ :30	저녁 식사					⑤ 영어듣기	
	:30 ~ :00							
19	:00 ~ :30	독서						
	:30 ~ :00							
20	:00 ~ :30	매일 공부 시작 전 10분 영단어 공부						
	:30 ~ :00							
21	:00 ~ :30	③ 수학 심화	영어 심화	수학 심화	영어 심화	수학 심화		
	:30 ~ :00							
22	:00 ~ :30	⑦ 드라마			독서			
	:30 ~ :00							
23	:00 ~	취침						



● **【학습 Tip】 공부도 '나만의 준비운동'이 필요하다**



표를 보면 이 학생은 식사 후 바로 공부를 하려니 집중이 되지 않아서 30분의 독서시간을 계획표에 넣었습니다. 차분히 공부할 분위기를 만들고 두뇌와 시력을 다시 쉼으로 옮겨 올 중간단계인 셈입니다. 이때는 꼭 빠져들 만큼 흥미로운 책이 좋습니다. 이 학생은 만화책이나 주리소설을 주로 읽었는데 표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① **하교 후 간식 및 휴식**

학교에서 돌아오면 몸과 마음에 모두 휴식이 필요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간식을 먹는 등 자연스러운 휴식이 좋습니다. 텔레비전이나 게임은 한없이 늘어질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30~40분 정도 휴식이면 적당하지만 요일과 상관없이 '5시까지 휴식' 이렇게 정해 두어도 괜찮습니다.

② **과제, 복습 문제 풀이**

휴식이 끝나면 먼저 숙제를 합니다. 검사일이 한참 남았더라도 받은 날 바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루에 끝낼 수 없는 숙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틀을 정해 두세요. 숙제를 모두 마쳤다면 그날 배운 부분을 복습합니다. 숙제가 없는 날은 바로 복습을 시작하면 됩니다.

〈예시〉복습을 하는 순서는?

- 주요과목만이라도 교과서, 노트, 프린트 등 학교에서 수업한 자료들을 가져온다.
- 문제집에서 오늘 배운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를 골라서 푼다.
- 문제를 푸는 동안 모르는 것은 교과서, 프린트, 노트를 찾는다.
- 틀린 문제를 다시 풀 때에도 마찬가지로 교과서, 프린트, 노트를 참고한다.
- 문제집의 요약정리, 모범해설은 가능한 한 보지 않는다.



③ 추가 공부

미루지 않는 숙제와 매일 복습이 충분히 몸에 익었다면 다른 공부를 더 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30분 이내의 가벼운 분량으로 시작하고 규칙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면 분량을 조금씩 더해 나갑니다. 매일 공부가 어렵다면 요일을 정해도 좋습니다.



체크포인트!

▶ 앞서 예시된 학생의 경우 처음에는 수학 문제집 풀기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수학만 하는 것이 지겹기도 하고, 영어공부의 필요성이 생겨서 격일로 영어독해를 추가한 경우입니다.

④ 토요일에는 주중 밀린 공부

주중에 밀린 복습이나 추가공부가 있다면 그 주를 넘기지 말고 해결해야 합니다. 토요일에 2~3시간 정도를 구분하여 주중에 다 하지 못한 공부를 보충하도록 하세요.



체크포인트!

▶ 추가공부의 경우 보충의 수준을 넘어 주중의 공부를 모두 몰아서 하는 정도라면 어떨까요? 이때는 주중 공부 분량을 줄이든지 추가공부를 쉬게 하는 등 공부계획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⑤ 주말에만 하는 공부

오전 중에 밀린 공부를 모두 마치는 것이 몸에 익었다면, 오후에는 주말에만 하는 공부를 정해 봅니다. 꼭 교과공부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주말에만 하는 운동, 악기 배우기도 좋습니다.



체크포인트!

- ▶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수학, 역사 등 교과 관련 다큐멘터리나 명사 특강 등 유익한 동영상 찾아 두었다가 주말 공부 시간을 활용해서 보게 합니다.
- ▶ 주말 공부를 위해 교재를 정한다면 얇은 것을 권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책임 끝나는 성취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⑥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전일 휴식

일요일에는 공부계획이 없어야 합니다. 외식, 사우나, 장보기, 세차, 산책 등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사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말 내내 학원보충을 하느라 좀처럼 아이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면 조정을 해 주세요.

⑦ 텔레비전 시청 계획

텔레비전은 많이 보는 것보다 생각 없이 이것저것 보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주말 예능 프로그램, 늘 챙겨보는 드라마가 있다면 처음부터 그 시간을 텔레비전 시청 시간으로 정해 놓으세요. 텔레비전을 못 보게 하는 것보다 시간을 의식하며 보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07

방학 기간 집중학습법

방학은 진짜 '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선행학습에 묶이지 말고 내 아이가 하고 싶은 공부, 내 아이에게 필요한 공부에 초점을 두세요.

1. 취약 부분 복습하기

지난 학기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학

방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학기 교과과정에서 대충 넘어갔거나 자신 없는 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일입니다. 학원에서 하는 총정리 특강은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모르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 취약 부분이 취약 과목을 만든다

취약 부분이 남아 있을 경우 다음 학기, 다음 학년에서 연관되는 내용이 나오면 다시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난 원래 사회를 못 해' 하며 그 과목을 통째로 멀리하게 됩니다. 개념 한 두 개, 단원 하나처럼 취약 부분이 작은 단위일 때 보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들은 조금만 몰라도 '하나도 모른다'고 인식하여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 평소 매일 복습시간을 활용하자

취약 부분 복습은 방학 내내 할 만큼 분량이 많은 공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 공부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기말고사 후 방학식 전'의 약 2주간입니다. 방학을 기다리며 놀듯 지나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학교수업도 여러 가지 행사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체크포인트!

이 기간에는 매일 복습 분량도 거의 없으므로 취약 부분 복습은 바로 이때, 하고 후 매일 복습을 하던 시간에 하면 좋습니다. 평소 공부의 리듬을 이어갈 수도 있고 방학 중 따로 공부할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니 일석이조인 셈이지요.



취약 부분 복습방법 2단계

과목별로 취약 부분이 다르기도 하겠지만, 몸이 아프거나 슬럼프에 빠지는 등 전체적으로 공부를 제대로 못 한 기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배웠던 내용을 모두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교과서를 넘겨 보며
취약 부분을 살펴보기

Step 1

지난 학기에 배운 것 중에서 다시 공부해야 할 부분을 찾으려면 첫 장부터 배운 곳까지 교과서를 넘겨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원명, 밑줄, 필기흔적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수업할 때의 장면도 떠오르고 시험공부를 하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 공부 내용과 관련되어 무언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공부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 별표가 그려진 문제를 만나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 공부가 더 필요하겠다고 판단되면 교과서 앞 목차에 표시를 해 둡니다.

교과서를 읽고 문제집을
풀면서 스스로 공부하기

Step 2

취약 부분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공부는 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할 부분을 정해 놓고 하는 공부이므로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 교과서, 프린트, 노트를 통해 학교수업 내용을 다시 공부합니다.
- 문제집에서 해당 내용의 문제들을 다시 풀어봅니다.
- 혼자 공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부모님, 친구,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시험 전에 이렇게 공부하면 좋았을 텐데”

Case



꼼꼼하지 못한 남자아이들

중1, 중3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자아이들이라 꼼꼼하게 자기 공부를 챙기지 못해서 속이 타요. 특히 작은 아들은 점수도 안 나오면서 자신은 잘하고 있다며 늘 큰소리를 칩니다. 녀석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여름방학 때는 1학기 공부를 다시 봐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가 점검

교과서를 펴 놓고 자신 없는 부분을 골라 보라고 하니 방정식의 활용 부분에서 응용문제들이 헛갈린다고 하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과목들에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또 속이 탔습니다. 그래도 강요할 수는 없어서 본인이 하겠다는 것만 하라고 했어요.

문제집도 다시 풀어 보기

우선 교과서와 학교에서 받은 프린트의 문제들을 모두 다시 풀게 했습니다. 늘 큰소리치던 놈이 오죽하면 자신 없다고 골랐을까 싶어 문제집도 풀게 했습니다. 평소에 풀던 문제집을 다시 풀고, 사 놓고 풀지 않던 난이도 높은 문제집도 풀어 보라고 했어요. 반복되는 문제풀이를 지루해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아이는 점점 문제풀이 실력이 느는 자신을 실감하는 듯했습니다.

공부에 대한 자신감 회복

전에는 대충 감으로 풀던 어려운 문제들도 식을 세워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시험 전에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하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스스로 취약점을 해결하고 나니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시켜서 다른 과목들도 억지로 하게 했다면 이렇게 집중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공부해야 성과도 좋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껴요.



2. 체험학습으로 뇌를 자극하기

가슴으로 배우는 경험을 선물하자

중학교 입학 전후하는 13~14세 무렵에는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주 쓰는 기능의 신경세포는 복잡하게 발달하는 반면 자주 쓰지 않는 기능의 신경세포는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다양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 내 아이의 전두엽은 지금 확장공사 중!

영유아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발달했던 전두엽이 13~14세 무렵 새롭게 재구축됩니다. 이 때는 두뇌의 회백질이 1년에 두 배로 늘 정도로 매일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지요. 그중 경험으로 강화된 것은 남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소멸합니다.

책상을 벗어나게 하자

이성의 뇌보다 감정의 뇌가 더 우월한 시기이니 머리보다 가슴으로 배우는 경험을 선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양질의 좋은 경험을 긍정적으로 쌓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청소년들이 책상 앞에 붙어서 공부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잔인하기까지 한 일이지요.

무엇이든 진심으로 겪게 하자

부모가 원하는 만큼 아이의 뇌를 확장공사하려면 좋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좋은 재료는 양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어집니다. 좋은 책, 영화, 여행, 사람들, 새로운 문화체험 등 무엇이든 청소년들이 진심으로 겪어 보아야 합니다. 매일 반복되던 등·하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학은 그래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 다양하고 긍정적인 경험이 필수!

방학이라고 묵묵히 놀이기에 바쁜 체험활동, 봉사활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슴으로 하는 경험, 무언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경험, 한동안 말을 잊게 만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감정조절이 어려워지는 시기

청소년기에는 전두엽이 미숙한 반면 감정의 뇌는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감정 조절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덜 나와서 감정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청소년들은 아동과 성인에 비해 세로토닌이 40% 정도 덜 나온다고 합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 세로토닌이 평소보다 40% 강하다면 우울증, 불안증 환자로 봅니다. 이 정도이니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는 몇 번이고 마음을 다스려야 하지요.

감동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감정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좋은 느낌으로 기억된 경험은 평생 남으므로 가슴에 와 닿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길을 가다 스치며 들었던 기타연주 소리를 잊지 못해 음악가가 된 사람도 있고, 감동적인 영화의 한 장면 때문에 배우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 머리보다는 몸으로!

청소년들은 전두엽이 공사 중인 상태라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아무리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청소년 뇌의 특성상 듣지 못한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든 일단 감정의 뇌를 통해 전두엽으로 기억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몸으로 부딪히면서 깨닫게 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미혼모 체험으로 바뀐 아이들

미국에서 청소년들에게 일주일 동안 진짜 아기처럼 프로그래밍이 되어있는 '아기인형'을 주고 키워 보게 하였습니다. 아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수업 시간에 아기가 울어 고생을 한 뒤에야 청소년들은 아기 키우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님을 실감했습니다. 한 번의 체험으로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직접 체험해야 하는 이유는?

청소년기의 뇌는 시냅스가 너무 많아서 다면적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밖에 생각을 못하고, 그나마도 서로 연결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체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어 봐야 비로소 여러 가지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로도 직접 체험하게 하자

Case

아들의 꿈은 외교관

중1 아들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우리 아들의 꿈은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멋있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일하는 선배와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사명감도 필요하고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 월급은 어느 정도이며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게 힘들어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지요.

살아있는 직업 체험

그날 이후 아이는 미래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책도 찾아 읽고 전문가에게 메일을 보내기도 해요. 글로벌 리더 캠프, 직업 체험처럼 방학 때 잠깐 경험하는 프로그램들은 진지하게 자신을 고민해야 할 사춘기 아이들에게 충분하지 않아요. '진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3. 방학숙제 효과적으로 하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어른 몫

아이들의 방학숙제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숙제에 필요한 질적인 고민은 스스로 해야겠지만, 실천 방법이나 규칙적인 실천 계획은 도와주어야 합니다.

★ 매일 해야 할 숙제들은 실천 목록을 만들자

영어일기, 독서, EBS 방송청취 등은 매일 시간을 정해 실천합니다. 방학 중의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특히 방송청취의 경우는 공부도 할 겸 수강 과목을 늘려 매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후 30분은 독서, 월수금요일 오후 4시는 EBS 영어, 화목요일 4시는 EBS 수학, 자기 전 30분은 영어일기. 이렇게 매일 실천할 목록을 만들어 두면 안정적입니다. 표를 만들어서 O, X 표시를 하면 체크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실천 목록 만들기>

	7/27	28	29	30	31	8/1	2	3	4	5	...
점심 후 30분 독서											
4시 EBS 영어 (월수금)											
4시 EBS 수학 (화목)											
저녁 후 30분 독서											
자기 전 30분 영어일기											



☆ 매일 1~2시간 방학숙제 하는 시간을 정하자

방학숙제는 자주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매일 1시간 정도 방학숙제를 하는 시간을 정해 보세요. 저녁 7시~9시 정도면 가족과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도움을 받기에 좋습니다. 미술전을 다녀왔다면 월요일 숙제 시간에는 견학문을 쓰면 됩니다. 그 시간이 되면 '오늘은 무슨 숙제를 할까'라고 숙제를 인식하게 하세요.

☆ 어려운 숙제는 모범 예를 참고하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숙제는 존경하는 인물 인터뷰, 과학탐구 보고서, 가계도 그리기 등 작업의 범위가 넓은 것들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모범 사례를 찾아보세요. 예시를 보면서 사진은 어떻게 붙이고, 설명은 어떻게 썼는지 먼저 감을 잡게 하고 자기만의 숙제를 시작합니다.

{ '나는 이 사진을 붙여야지', '나는 교과서에 있는 주제로 해야지' 등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과정까지 엄마, 아빠가 함께 해 줍니다. 이 과정을 넘기지 못한 아이들은 그냥 본대로 따라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 독서록, 체험학습 보고서, 기행문 등은 기록 양식을 만들어 주자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느낀 점을 쓰라고 하면 아이들은 '즐거웠다'라고 한 줄 써 놓고 맙니다. 이럴 땐 무엇을 써야 할지 살짝 힌트를 주세요.

{ 독서록이라면 날짜, 읽은 책 제목, 등장인물 소개, 줄거리 요약 등으로 책에 대한 전반적인 환기를 합니다. 느낀 점을 쓸 때에도 재미있었던 점, 마음에 안 들었던 점,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쓸 말이 많아집니다. 또한 아이의 생각이 돋보일 수 있도록 소재목을 나누어 쓰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승현이 가족 속초에 갔다'와 같이 재미있는 제목을 붙여 표지를 만들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독서기록 양식 예>

독 서 기 록 장									
책 제목						출판사			
저자/글:					역자/그림:				
다 읽은 날		년	월	일	기록한 날		년	월	일
등장인물 소개					줄거리 요약				
재미있었던 점					주인공/저자에게 하고 싶은 말				
마음에 안 들었던 점					알게 된 점				
마음에 남는 구절									



<체험학습 기록 양식 예>

체 험 활 동 보 고 서					
제목				장소	
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함께한 사람들					
사전 조사내용					
느낀 점			알게 된 점		
관련교과/단원		관련내용			
사진					



4. 개학 준비하기

생활습관부터 학습습관까지 새롭게!

개학 첫날부터 아무진 공부를 시작하려면 일주일 전부터는 탄력을 붙여 놓아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는 것부터 지키며 생활을 다듬어 보세요. 방학 공부 중 완료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하나씩 마무리한다면 학습모드가 자연스럽게 개학으로 연결됩니다.



호트러진 생활습관을 바로잡자

개학을 하고 하루가 빠듯해지면 아이들은 원하는 만큼 여유 시간을 쓸 수 없다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요일별로 챙길 것, 제출할 것, 기억할 것이 많은 학교 생활을 멍하니 보내기도 하지요.

구체적인 행동, 작은 습관 기르기

‘집에 오는 길에 서점에 들려야지’, ‘점심 먹고 20분 동안 해야지’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을 생각하도록 지도하세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작은 습관만으로도 생활관리가 가능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찍 자야 합니다. 학교 생활 적응에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취침시간이 뇌의 성장시간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뇌의 활동이 활발한 시간은 밤 10시에서 오전 6시입니다. 새벽 1시, 2시에 자는 것이 일상이라면 그만큼 뇌의 성장을 억누른 셈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뇌의 질에 차이가 나며 결국 사고력, 학습능력, 성격의 차이로 연결됩니다.



☆ 목표로 했던 방학 공부를 개학 후까지 이어가자

목표대로 마치지 못한 공부는 방학이 끝나가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개학이 다가오면 오히려 마감효과를 노리세요. 며칠이라도 매일 공부를 지키면 공부분량을 채울 수 있고, 공부리듬을 회복하게 됩니다.

개학 첫 주는 수업 내용이 많지 않으므로 그 사이에 방학 공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남은 공부가 있다면 분량을 줄여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어나갑니다. 힘겹게 이루어 낸 공부일수록 성취감도 크고 학습동기를 더욱 자극하게 됩니다.

☆ 실천목록을 만들자

개학 후의 생활을 상상해 보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부터 잠자기 전까지 꼭 지켜야 할 실천사항은 무엇인지,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서 실천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 알람이 울리면 꼭물거리지 않고 일어난다.
- 매일 아침밥은 꼭 먹는다.
- 한동안 쉬었던 아침공부를 이틀에 한 번만이라도 다시 시작해 보자.
- 여유 있게 등교하여 아침부터 허둥대지 않는다.
- 등교 직후에는 영어 단어 복습을 한다.
- 다음 시간의 수업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책과 노트를 챙긴다.
- 읽을 책을 가지고 다니며 틈이 나는 대로 읽는다.
- 집에 돌아오면 숙제부터 끝낸다.
- 잠들기 전 책가방, 준비물, 체육복 등 다음날의 준비를 완료한다.
- 학교를 가지 않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지 계획한다.



08

시험 준비 맞춤학습법

조금 부족하더라도 스스로 시험공부를 하도록 도와주세요.
사교육 없이 자신의 힘으로 직접 부딪혀 볼 수 있도록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할지 하나씩 알아봅니다.

1. 시험공부는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

시험 2주 전, 시험공부를 시작하자

굳이 시기를 말하자면 시험 준비는 2주 전이 적당합니다. 학원에서는 시험 3~4주 전부터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그날 수업 내용을 써 보게 하거나 주요내용을 외우게 합니다. 하지만 시험범위도 정해지지 않았고 수업 진도도 얼마 나가지 않은 상태라 시험공부를 할만한 것이 없지요.

★ 평소 공부 유지하기

선생님이 시험범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시험에 대한 회의를 시작하고, 교무실 문에 '시험문제 출제 중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붙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2주 전입니다. 아이들도 이때부터 시험에 대한 긴장을 하면 됩니다.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

시험문제 출제 기간이 되면 선생님들 머릿속은 온통 시험에 대한 생각뿐이기 때문에 이때의 수업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야 합니다. 하교 후에도 배운 부분을 철저히 복습하여 평소 공부 그대로 시험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평소에 하던 공부 형식으로!

시험공부는 평소에 했던 공부를 반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가장 좋습니다. 평상시 학교 수업을 잘 듣고 집에서 복습 문제풀이를 잘 하였다면 됩니다. '시험용 공부'는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늘 해오던 매일 복습, 수업 집중 등이 가장 완벽한 시험공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 밀린 복습이 많다면 추가공부 시간 활용

시험이라 해도 평소 해오던 공부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단하면 시험 후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 싫어지거나, 공부의 연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원래 시험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자리잡으면 곤란합니다.

{ 시험기간은 평소 하던 공부에 시험 공부를 더하는 기간입니다. 그래도 밀린 복습이 많다면 어쩔 수 없이 추가공부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추가공부를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분량을 줄여서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기출문제 정정하기

지난 시험문제를 학교 홈페이지나 도서관에 비치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시험대비가 훨씬 수월합니다. 기출문제는 시험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에 봐야 합니다.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시험공부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출문제를 '구경한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훑어보기

과목별로 교과서를 펼쳐 기출문제가 나온 단원과 해당 내용, 도표, 그림 등에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단원이 중요한지, 어떤 내용이 자주 출제되는지, 문제 유형은 어떤지 알게 되어 공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구하기 어렵다면 이 과정은 생략하기

수능 시험이나 자격증시험, 국가고시 등 이후에 아이들이 보게 될 많은 시험들은 기출문제를 활용한 공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적당한 기회에 기출문제 활용법을 알려 주도록 하세요.



2. 과목별 체크 포인트

〈공통〉 단원별 학습목표 확인하기

교과과정의 모든 시험은 학습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단원별 학습목표입니다. 공부 시작 무렵이라면 학습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하도록 추려 주고, 마무리할 무렵이라면 학습목표 해당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학습목표의 예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속하는 소단원 ‘뿌리’를 공부한다고 하면, 두 가지 학습목표가 있습니다.



- 첫째, 뿌리의 구조를 이해하고, 물과 양분이 흡수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둘째,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원소를 나열할 수 있다.



학습목표를 보고 문제 예상하기

학습목표로 미뤄볼 때 뿌리의 구조를 이해했는지(그림을 보고 뿌리 구조에 해당하는 명칭과 기능 알기), 물과 양분이 흡수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물과 양분이 흡수되는 과정의 차이 및 각각의 순서),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원소를 나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보고 돌아온 아이에게 쪽지를 남겨 주세요

Case

직장맘입니다. 늘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아이가 시험 날은 일찍 끝나니 더 외로울 것 같아 쪽지를 남겼습니다. ‘시험 보느라 수고했어. 결과야 어쨌든 그 동안 애 쓰면서 공부한 것으로 충분해. 사랑한다. 아들이.’

아이가 고맙다고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교복도 벗지 않고 제가 퇴근할 때까지 공부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점수와 상관없이 토닥여 주니 아이도 힘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 이후로 시험 날은 격려 쪽지를 남기곤 합니다.



〈국어〉 문법, 문학 공부하기

국어는 단원 특성에 따라 공부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보통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로 구분되는데 말하기/듣기는 평이한 내용이라 공부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읽기는 문학, 수필, 논설문 등 긴 본문이 나오는 파트, 쓰기는 문법입니다. 아이들이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문학과 문법입니다.

☆ 문학은 지문 전체 읽기

문학은 지문의 길이가 길고,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직접 전달하는 글이 아니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문학은 세부사항보다 글 전체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두세 번 읽게 합니다. 읽으면서 문단의 숨서와 맥락, 작품의 배경과 주제, 등장인물의 성격,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낱말이나 문장 등을 필기를 하지 않고 대략 떠올릴 수 있다면 성공입니다.

☆ 문법은 다양한 문제 연습하기

문법은 헛갈리는 것 투성이지요. 일반적인 규칙 외에 예외사항이나 변형, 바른 표현, 표준어 등 외워야 할 것들이 제법 등장합니다.

교과서의 예제로는 부족하고, 다양한 문제를 통해 충분한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생님 책상 위에 있는 문제집을 여러 권 빌려 문법 파트만 복사를 해도 좋습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한 후라면 서점에 들러 다양한 책을 보며 문법 부분만 훑어보고 와도 됩니다.



〈영어〉 본문 암기하기

모든 전문가들은 영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암기'라고 말합니다. 30분 이상 영어로 외울 것이 없다면 30분 이상 영어로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진리'는 학교시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교과서의 모든 문장을 외우자

초·중·고 영어교과서에는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영어 문법, 단어, 숙어가 그대로 적용된 문장들이 가득합니다. 수능영어는 물론 토익, 토플, 텡스 등 영어시험의 기반이 되는 문장들이니 엄마와 함께 교과서의 모든 문장을 외우기로 다짐해 보세요.

★ 평소에 복습 삼아 진도만큼만 외우자

읽고 쓰고 말하면서 각자 편한 방법으로 외우면 됩니다. 영어 문장만을 보고 외우는 것보다, 우리말 해석을 보며 거꾸로 영작을 해 보세요. 문장의 구조와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이루어집니다. 전치사와 소유격, 복수형, 인칭 등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많으니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외우도록 도와주세요.

〈수학〉 취약 유형 골라 풀기

학원에서 쓰던 교재, 선행학습 한다고 샀던 책, 인터넷 강의 신청하고 받은 문제집 등 다 풀지 못하고 책장에 꽂혀 있는 문제집들을 시험 때 활용하세요.

★ 시험이 가까워 오면 골라 풀기로!

시험이 가까워 오면 평소 자주 틀리거나 어려웠던 문제 유형만 골라 집중적인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평소 복습용으로 푸는 문제집은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 문제집은 취약 유형 문제만 골라서 푸는 용도로 사용하세요.

〈사회, 과학, 도덕, 기술·가정〉 문제점 오답설명 적기

사회, 과학 등 구체적으로 기억할 내용이 많은 과목은 문제집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교과서만 읽어서는 요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문제를 보며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의 함정이나 객관식의 보기들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반복하세요.



☆ 문제에 담긴 '모든 내용'을 공부하자

문제를 맞고 틀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답이 5번이라면 보기 1번부터 4번까지는 왜 답이 될 수 없는지 모두 설명을 써보는 것입니다. 시험범위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공부하면 중요한 내용, 자주 출제되는 내용, 헷갈리는 내용을 지겹도록 반복하게 됩니다. 같은 문제는 없어도 보기가 중복되는 경우는 많기 때문이지요. 자연스럽게 이해와 암기가 되므로 암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효과만점입니다.

〈음악, 미술, 체육, 기타〉벼락치기 하지 않기

예체능 및 기타과목의 경우 실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필기 시험은 시간을 내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과목은 평소에 열심히 하고 시험이 가까울수록 암기과목, 기타과목에 시간을 충분히 쓰도록 지도하세요.

☆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하다

시험 전날 벼락치기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수업 시간에 한 번, 그날 오후 복습하며 또 한 번, 시험 1주일 전에 한 번, 시험 전날 한 번, 시험 날 아침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은 보고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모든 과목은 동일하게 중요하며 무엇이든 나에게 주어진 공부는 최선을 다 해야 함을 알려주세요.



3. 시험 후 학습 관리 방법

마치지 못한 시험공부는 마저 하자

시험은 지속적인 공부의 점검과정에 불과합니다. 시험이 끝나도 다 하지 못한 공부를 마저 하고, 평균 이하의 과목은 보충공부를 하는 등의 학습관리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학습태도 습관 들이기

시험보기 전에 시험 범위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시험이 끝난 후라도 공부를 마무리합니다. 점수가 높게 나왔더라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공부를 완성해야 합니다.



다 못지 못한 문제집을 풀고, 다 외우지 못한 영어 본문을 외우며,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보기로 해놓고 보지 못한 프린트를 봅니다. 늦더라도 스스로와의 약속은 지켜야 하며 그것만큼 훌륭한 노력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점수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학습태도입니다.



평균 이하의 과목은 시험범위 전체를 다시 공부하기

공부를 안 했거나, 대충 한번 보고 시험을 봐서 평균 이하의 점수가 나왔다면 주요과목이 아니라도 다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학교에서도 답을 맞추거나 체험 학습을 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이 바로 시작되지 않으므로 여유가 있습니다.



하교 후의 복습시간을 활용하세요. 시험범위 전체가 해도 시험 전체랑 부담이 없으니 오히려 공부에 더 좋습니다. 또한 시험문제를 이미 알고 공부하는 것이라 중요한 내용만 골라가며 공부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쉽게 끝나는 시험공부에 대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안 했지? 다음에는 공부해야지."라는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평소 공부로 빨리 돌아오자

건강한 공부는 평소나 시험기간이나 차이가 크지 않은 공부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평소에는 '넌 공부만 하나?'라는 핀잔을 듣고, 시험 때는 '넌 그렇게 노는데 어떻게 성적이 잘 나와?'하는 핀잔을 듣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 평소 생활리듬과 공부 모드로!

시험결과가 어떨든 평소 생활리듬, 평소 공부 모드로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숙제가 생기면 미루지 않고 받은 그날 곧바로 하며, 수업을 하면 배운 만큼 복습을 해야 합니다.

시험 후 쉬는 것은 시험이 끝난 주 주말까지가 적당하고, 월요일부터는 다시 진지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 후 풀어진 긴장감이 계속 이어져서 다음 시험 벼락치기까지 연결됩니다. 특히 중간고사는 날씨도 좋고 행사도 많은 봄, 가을에 있으므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어야 합니다.

☆ 그 동안의 공부를 되돌아보기

내 공부의 주인이 되려면 시험점수보다는 스스로 평가한 내용에 더욱 민감해야 합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자신의 공부 과정을 점검해 보세요. 다음에 첨부된 <시험 후 필수 점검사항>을 참고하여 부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이전보다 나아진 점은 무엇인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지, 다음 시험에 반영할 내용은 무엇인지 등 시험기간의 공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험 후 필수 점검사항>

시험 후 필수 점검사항

이름 :

시험공부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구체적으로 기록하십시오.

1-1. 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과목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 과목 :
- 이유 :

1-2.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과목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 과목 :
- 이유 :

2-1. 점수와 무관하게 공부과정만을 평가한다면
안정감 있게 공부한 과목은 무엇입니까?
어떤 점이 좋았나요?

- 과목 :
- 좋았던 점 :

2-2. 점수와 무관하게 공부과정만을 평가한다면 가장
불안했던 과목은 무엇입니까?
어떤 점이 부족했나요?

- 과목 :
- 부족했던 점 :

3. 이번 시험기간 나의 공부 모습 중 지난 시험기간보다
나아졌다고 느낀 점이 있다면?
(예 : 공부계획, 암기력, 공부하려는 마음 등)

4. 나의 공부 모습 중 '이런 건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5. 다음시험 공부 때 반영할 점은 무엇입니까?
시간관리, 과목별 공부전략, 학습태도 등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4. 효과 있는 상과 벌은?

상과 벌의 효과는 아이마다 다르다

상이든 벌이든 성적을 조건으로 한 것은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합니다.
부모는 보상을 미끼로 여겨서는 안 되며 아이는
대가를 바라고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성향과 가정의 분위기, 형제 관계 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그리고 아이는 물론
가족 모두에게 즐거운 방법을 찾아보세요.



☆ 성과 중시 유형, 사람 중시 유형

성과를 중시하는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객관적인 자료, 금액, 날짜 등을 세밀하게 살핍니다.
반면 사람을 중시하는 유형은 인간관계, 의리, 명예 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조별 숙제가 있다면?

- 성과를 중시하는 아이들은 “몇 점 짜리예요? 언제까지 해요?”를 묻습니다.
- 사람을 중시하는 아이들은 “우리 조 누구예요?”를 물어 봅니다.

☆ “이번 시험 잘 보면 최신 휴대폰 사 줄게”

시험 잘 보면 최신 휴대폰을 사 준다는 말에 모든 아이들의 눈이 번쩍 뜨이는 건 아닙니다.
이 역시 성과를 중시하느냐 사람을 중시하느냐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성과를 중시하는 아이에게는?

기준이 되는 점수, 휴대폰 기종, 사 주는 날짜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사람을 중시하는 아이에게는?

“네가 시험을 잘 보면 가족 모두 즐거운 일이니 외식을 하자. 메뉴는 네가 먹고 싶은 걸로 해.”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너의 노력 덕분에 오늘 식사가 특별히 의미 있고 즐겁다.”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와 아이가 성향이 다를 경우에는 신중하게!

부모 관점에서 시험 때마다 매력적인 선물들을 제시하면, 아이는 '엄마는 내가 아직도 어린 애인 줄 아나? 그런 거 받고 싶어서 공부하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엄마는 '무언가를 바라고 공부하는 것은 진짜 공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성별에 관심이 없다면 어떨까요? 경쟁과 성취를 좋아하는 자녀라면 매일 똑같은 공부가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승부욕을 살려 주세요

Case

선물이 걸리면 집중하는 아이

고1 딸과 중3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큰 아이에게는 보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의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달랐습니다. 보물찾기나 낱말 맞추기 등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선물이 걸려 있으면 기를 쓰고 매달려서 선물을 받고야 마는 거예요.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울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같은 팀이 지게 되면 집에 와서까지 화가 풀리지 않았지요. 그것이 승부욕의 어린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경쟁과 성취를 즐기게 하자

지금도 숙제를 다 하거나 영어 단어를 잘 외웠을 때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 좋아합니다. 운동화된 자전거든 목표 점수에 걸어 놓으면 훨씬 진지하게 공부하기도 하고요. 그냥 사주는 것보다 신이 난대요. 크든 작든 노력한 후에 무언가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 좋은가 봅니다. 아이들에게 경쟁과 성취를 즐기는 법을 알려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벌 내용은 아이와 협의해서 미리 정하자

벌보다 상을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벌은 '게임 시간 줄이기'와 같이 아이에게 유익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시험결과가 좋지 않아 게임 시간이 줄어도 '다음 시험까지'라고 시간을 한정해야 합니다.

☆ 상벌 내용은 1개월 전에 정하기

시험을 코앞에 두고 상벌을 정하는 것은 결과를 위해 벼락치기라도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상벌의 내용은 한 달 이상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정하세요. 아이가 느끼기에 '지금부터 노력한다면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야 합니다.

☆ 상은 미리 주더라도, 벌은 점수를 기준으로!

공부하는 태도가 성실하다면 상을 미리 주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아직 안 나왔지만 시험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충분히 새 휴대폰을 받을 만했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세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으니 교육효과도 크지요.

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 공부하는 꼴을 보니 시험 점수 볼 것도 없이 게임 시간을 줄여야겠다."라고 해서선 안 됩니다. 아이는 엄마 마음대로 해 버리는 결정에 분노하고, 부모에 대한 불신으로 커집니다.

☆ 상벌의 내용은 아이와 협의하기

아이들은 미숙하다더라 자신의 욕구와 판단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협상을 배우고,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며, 자신의 요구사항을 투정 없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도 선물로 쓸 수 있는 돈의 액수, 다른 형제들의 입장 등 아이가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을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



